

**A STUDY ON THE GROWTH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ROUGH SMALL GROUPS IN LAS VEGAS**

소그룹을 통한 한국 이민교회의 교회성장의 관한 연구

A Doctor of Ministry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Doctor of Ministry

By

Dong Woo Nam

May 2020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A STUDY ON THE GROWTH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ROUGH SMALL GROUPS IN LAS VE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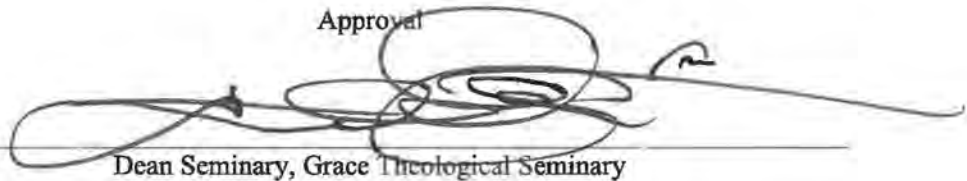
소그룹을 통한 한국 이민교회의 교회성장의 관한 연구

Written by
Dong Woo 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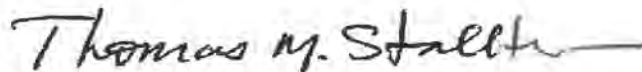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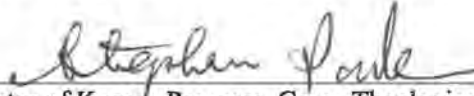
Appro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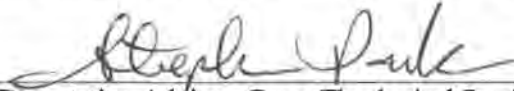
Dean Seminary,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Ministry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년전 쯤 논문을 패스하고 학위를 받았어야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논문이 중단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항상 격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Grace Theological Seminary 의 Dr. Stephen Park 교수님과 Rachel Park 교수님께서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격려와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두 분 교수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없었다면 논문 작성에 대한 의지를 잃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선교 사역 경험을 토대로 성경과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목회자들에게 깊은 혜안을 제시해주신 Dr. Thomas M. Stallter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그리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신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가족 정숙, 기혁, 기훈, 하은이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Acknowledgements

Hallelujah!

First off, I give all the glory and honor to God who is most worthy of the highest praise. My dissertation should have been completed two years ago, but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and personal reasons, it was delayed.

But then last summer, Dr. Stephen Park and Dr. Rachel Park, visited Las Vegas and I was able to meet up with them. Through their encouragement and help, I was able to write my dissertation again and have come to this point. If it wasn't for these two professors, then I would have given up my dreams and efforts of finishing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greatly thank both of them.

Also, I would like to thank Dr. Thomas M. Stallter, who taught classes with his passion and care through his experiences in the mission field.

I would like to thank my congregation, Henderson Christ Love Presbyterian Church, for their prayers and love. Lastly, to my loving family Jeongsuk, Kihyeok, Gihun, and Haeun, for their love.

ABSTRACT

Nam, Dong Woo

2020 "A Study on the Growth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rough Small Groups in Las Vega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The immigrant church in the United States has served to be more than just a church or a place of gathering. It has become where business relationships are formed, social groups established, and also spiritual well-being is taken care of. Also, the immigrant church has become a place where culture and heritage are taught and hand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However, although the immigration church has a different place and culture, it cannot escape the Korean church. Since it is based in the Korean church, al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aspects in which it sustains the Korean church.

I believe that among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immigrant church, small groups are most essential in sustaining the Korean church. Through the small-group method, the Korean Church has fulfilled the church's essential mission of fellowship and spiritual maturation, evangelizing and volunteering, and as well as bringing about a great revival in the church.. What we also realize is that small group leaders serve to be vital ministry partners to pastors, in which they carry out roles and action the pastors are not able to carry out. And since small groups are family-oriented, the pastor is able to manage and takes care of the congregations more efficiently. These small-group communities are an effective model tha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hurch in helping immigrants cope and deal with loneliness and hardship.

This paper will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these small groups and will give answers and methods on how to grow into healthy church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 meetings for the sake of the immigrant churches that are on the decline.

And I am convinced that small group are the answers to the problems of 'excess material' and 'separation of faith from life' that derives from individualism which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or in Korean churches today. And through the realization of a scriptural belief and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part of a 'Christian communal life', this will allow Korean churches to become healthier.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pursue the rational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mall groups for healthier and growing Korean churches. The methods

In particular, the methods and theories presented in this research has been applied and carried out by Henderson Christ Love Presbyterian Church. Which is also the church that the researcher is in charge of. Therefore, through this, the researcher set out to establish growth and an improvement in the church's health through small groups.

The reason this topic was pursued and chosen for research was because of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which calls for the church to also rapidly change and adjust. In this way, the church can be properly nurtured for through small groups. Just like how the first churches had to adjust and grow through the sharing of the Gospel, we perspire to also do that same in our churche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and dissertation will first provide a healthy spiritual environment for those in the church, and through small groups, churches will find the original scriptural intent of what church is to be. It will especially reach out to those who are lonely and struggling in their immigrant lives. Finally, the research will conclude in that its purpose will be that the immigrant church will grow and become healthier through these small group methods.

Mentor: Dr. Stephen S. Park

한글 초록

남동우

2020 "소그룹을 통한 한인 이민교회의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이민교회는 미국 이민사회의 중심점으로서 모임의장소, 직업소개소, 사회사업기관 또한 연장교육의 장소이며 한국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유일한 장소다. 그리고 이민 교회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문화를 다음세대에 전수하는 문화전수의 장소이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장소와 문화는 다르지만 한국교회를 벗어날수 없다. 한국교회에 모태를 두고 있기에 모든 조직과 기관이 한국교회를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소그룹 구역모임이 한국 교회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 하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소그룹 구역제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성숙, 전도와 봉사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였고 더불어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왔다. 구역의 구역장은 목회자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목회적인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구역모임은 교회의 소그룹으로서 기능들을 잘 감당하였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그룹 구역 공동체는 외롭고 힘든 이민사회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본 논문은 이런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되새기며, 지금 쇠퇴하는 이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소그룹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연구하고 답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나 한국교회에 만연된 개인주의 중심에서 오는 '인간소외' 및 '신앙과 삶의 분리' 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이 의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소그룹 목회라고 확신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목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소그룹목회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소그룹 목회의 이론과 실재를 목회현장에 적용하여 성경적인 교회성장을 이루는 소그룹 목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교회는 소그룹 목회를 통하여 섬김과 격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유기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목회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결론으로 추구할 것은 먼저 교회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좋은 믿음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 소그룹구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며 특히 외롭고 신앙의 기본과 역사가 없는 이민교회에서는 공동체적 구역활성화는 더욱 절실하기에 이 연구를 통해 이민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목적으로 결론지을 것이다.

멘토: 박시경 박사

용어해설(Key Words)

패러다임(Paradigm) :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에클레시아 :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聖別)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

포스트모던 신학 : 1960년대 부터 지금까지 발전된 후기 하이데거적 대륙 철학(post-Heideggerian continental philosophy)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신학은 현상학, 탈구조주의, 그리고 해체사상의 관점에서 신학을 해석하는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운동이다.

르네상스 : 14~16세기에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 중심의 사상과 봉건 제도로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던 중세에서 벗어나, 문화의 절정기였던 고대로 돌아가자는 운동

재세례파 : 종교개혁에 수반하여 출현한, 비자각적인 유아세례를 비성서적이라 보고, 세례 지원자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는 프로테스탄트계의 종파

만인제사장론 :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without requiring a human mediator)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한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주장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가 성도이며 평등하다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교리로, 개신교의 신학 개념이다.

카타콤(catacomb): 초기 기독교 시대의 비밀 지하 묘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죽은 사람을 그곳에 매장하고 예배를 보기도 하였는데, 소아시아·북아프리카·남부 이탈리아 등지에 널리 있지만 로마 교외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경건주의: 17 세기 후반부터 18 세기 전반에 걸쳐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일어난 강력한 신앙운동.

셀 그룹(Cell Group) : 현대 목회에서 교회의 가장 작은 조직(소그룹)을 일컫는 신 개념. 생물학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체의 최소단위인 '세포'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다. 마치 세포 조직이 분열하듯이 셀(셀 그룹)도 성장하면 분열하여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양육: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

코이노니아 :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 그리스어로 공유, 참여, 공동체 등을 뜻하는 말로, 특히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의 형태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회중(Assembly) :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

성육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롬 8:3; 딤후 3:16).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골 2:9)

G12 : 12 명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셀목회

목차(TABLE OF CONTENTS)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ii
영문초록(ABSTRACT)	iv
한글초록 (ABSTRACT)	vi
용어해설(Key Words).....	viii
목차 (TABLE OF CONTENTS)	x
제 1 장 서론	1
A. 연구 동기	1
B. 연구의 타당성	3
C. 연구 목적	6
D. 연구가설	8
E. 연구방법 및 범위.....	9
제 2 장 소그룹 공동체의 신학적 이해	14
A.삼위일체의 공동체 신학.....	15
B.교회의 공동체 신학	20
1.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24
2.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25
3.예수님의 기도예 나타난 주의 공동체.....	27
4.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한 선교의 공동체.....	29

C. 공동체의 목표	30
D. 공동체 위기에 있는 한국(이민)교회의 과제.....	33
1. 공동체성의 위기	33
2. 공동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우리의 자세	34
 제 3 장 소그룹 공동체의 성경적 이해.....	38
A.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38
1. 창세기에 나타난 소그룹	40
2. 출애굽기에 나타난 소그룹.....	42
3. 역사서에 나타난 소그룹	43
4. 선지서에 나타난 소그룹	44
B.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45
1. 예수님과 12제자.....	45
2.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48
(1) 먼저 초대교회는 수직적인 신앙이 뜨거웠던 소그룹공동체였다.....	48
(2) 성도간의 교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충만한 소그룹공동체이다.....	49
(3) 칭찬을 받았고, 날마다 더한 소그룹 공동체.....	51
3. 바울 사역에서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52
 제 4 장 소그룹 공동체의 역사적 고찰.....	56
A. 초대교회 시대	56
B. 중세 시대의 소그룹사역.....	58
1. 수도원 공동체.....	58

2. 왈도파.....	60
3. 롤라드파.....	60
C.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	61
1. 마틴루터.....	61
2. 요한 칼빈.....	62
3. 제 세례파.....	63
D. 경건주의 시대의 소그룹.....	64
1. 필립 야콥슈페너.....	64
2. 진젠도르프.....	65
3. 유한 웨슬레.....	66
E. 근대와 현대의 소그룹 운동.....	67
 제 5 장 소그룹 목회와 교회 성장.....	71
A. 소그룹 목회에 대한 이해.....	71
1. 소그룹의 정의.....	71
2. 소그룹의 구성요소.....	73
(1) 양육.....	74
(2) 예배.....	76
(3) 공동체 교제.....	78
(4) 전도.....	81
3. 소그룹 목회의 역동성(생동감)	83
(1) 효율적인 소그룹 목회 역동성을 위한 원리.....	85
(2) 소그룹 목회의 역동성과 성령.....	90

B.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92
1. 교회 성장의 의미.....	92
2. 소그룹 목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중요성.....	93
(1) 시대적 요구	94
(2) 교회 성장을 위한 요구.....	97
3.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목회의 형태.....	103
(1) 초대교회 소그룹 목회의 사역.....	104
(2)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원리.....	105
(3) 소그룹 목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	110
 제 6 장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 방안.....	114
A. 소그룹목회 활성화를 위한 사역준비.....	114
1.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	115
(1) 목회자의 패러다임 전환.....	116
(2) 평신도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117
2. 소그룹 목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120
(1) 목회자의 비전 제시와 리더십.....	120
(2) 평신도와의 비전 공유.....	123
3. 교회 행정의 구조적인 변화.....	124
4.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 준비.....	126
B. 소그룹 목회 활성화 운영방안.....	127
1.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 운영방안.....	127
(1) 제도화된 교회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127

(2) 직분과 제도의 기능적 이해.....	130
(3) 두 날개로 나는 교회 :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132
(4) 말씀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구조.....	133
2. 건강한 소그룹 목회를 위한 4가지 전략.....	135
3. 소그룹 모임 진행 방법.....	142
4. 소그룹 목회 진행의 문제 및 해킹.....	145
5. 정기적 소그룹 모임 평가.....	149
6. 소그룹 재생산.....	151
C.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와 리더십	157
1. 소그룹 리더의 자질과 사역	157
2. 소그룹 리더의 사역.....	160
3.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160
4. 리더십의 형성과 실현.....	163
D. 소그룹 리더의 개발원리.....	164
1. 소그룹 리더십 개발.....	164
2. 소그룹 리더의 훈련지침.....	166
제 7 장 결론및 제언.....	168
A. 요 약.....	168
B. 제 언.....	170
참고도서 목록 (BIBLOGRAPHY)	175
약력 (VITA)	181

제 1 장

서론

A. 연구 동기

이민교회는 한국 이주민들 삶에 있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민 동포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크나큰 영적 위안과 삶의 활력을 얻는다. 이민교회는 미국 이민사회의 중심점으로서 모임의장소, 직업소개소, 사회사업기관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또한 이민교회는 이민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연장교육의 장소이며 한국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즉 교회에서 자기의 지위와 위신을 얻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얻을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 교회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문화를 다음세대에 전수하는 문화전수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장소와 문화는 다르지만 한국교회를 벗어날수 없다. 한국교회에 모태를 두고 있기에 모든 조직과 기관이 한국교회를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소그를 구역모임이 한국 교회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 하다고 본다. 한국교회에서 소그를 구역 모임은 교회부흥과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소그를 구역제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성숙, 전도와 봉사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였고 더불어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왔다. 구역의 구역장은 목회자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목회적인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구역모임은 교회의 소그룹으로서 기능들을 잘 감당하였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그룹 구역 공동체는 외롭고 힘든 이민사회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였던 '소그룹구역공동체'는 한국교회의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였고,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 구역제도에 많은 외국의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한국교회의 구역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기까지 하였다.¹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구역제도는 현대에 들어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다. 작은 교회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구역의 중요한 기능들, 곧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봉사, 전도의 기능들은 사라지고 쇠퇴한 가운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구역의 쇠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약해져가는 교회의 건강과 수적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들마다 구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의

¹김원기, *차세대를위한구역제도갱신을제안한다*, 목회와신학, 1996년 5월호, 73.

증거로 최근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되새기며, 지금 쇠퇴하는 이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소그룹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연구하고 답을 제시할 것이다.

B. 연구의 타당성

대체적으로 이민교회 신도들은 비판적 성향이 많다. 즉 한국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만큼 순종하지 않으며 설교와 교회행정 그리고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다루듯 취급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목회자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목회자가 보기에 충실하고 열심 있고 헌신적인 교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민 생활은 시간이 곧 돈이므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 몇 명의 지원자가 허락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소신 있는 목회 사역을 전개하기가 힘들게 된다. 더욱이 한국교회 통계와 미국교회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주축이 60%이상 주일학교 출신이나, 이민교회의 경우 그 신자의 삼분의 일이 현지에서 새로 교회생활을 하는 초신자들 이어서 평신도 훈련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피셔(David Fisher)는 국제화, 도시화, 세속화, 과학기술, 개인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뿌리없는 생활, 비도덕적인 생활, 갈등, 문화충돌, 하락하는 삶의 질이 현대 특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세상은 과거의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진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특히 기계문명 발달과, 고도의 정보화는 '다양화, 개체화, 분산화'를 가져와 인간의 접촉을 단절시켜 극도의 고립과 소외를 가중시키고 있다.²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 개인적인 만남과 참여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변영신학을 강조하는 성장 일변도의 목회, 교회본질로서 공동체성을 강조하지 못하고 개인 축복의 장으로서의 교회만을 강조한 목회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민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민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상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Shift)을 모색해야 한다.

²John Naisbitt, *메가트렌즈(Mega Trends)*, 정상용, 홍성범

윌리엄 벡햄(William Beckham)은 소그룹목회를 '제 2 의 종교개혁' 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³ 그러나 소그룹목회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소그룹 목회가 존재하고 있다. 21 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는 이때에 소그룹목회의 회복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올바른 교회론의 실천⁴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회자는 소그룹 목회 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민교회의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를 옮기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일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실수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다른 교인들을 선동해서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면 목회자나 교회의 고통은 배가 더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수적인 증가의 패턴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민 인구가 많이 몰리는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인수의 증가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목회자에게 타 교회의 부흥사례 소식 같은 것이 압박 감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외적으로 표방할 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

³William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21 세기를위한교회갱신'(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21stCentury), 터치코리아사역팀역, 서울: NCD. 2000,165.

⁴이광수, 소그룹이살아야교회가건강해진다,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2010, 24.

목회 구역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한국이민교회 목회 현장에 건강한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목회적 방안이다.

C. 연구 목적

교회에는 작은 그룹들이 많이 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 기본적인 구조와 조직들이 다양한 형태와 소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 가운데서도 '구역'이라는 교회의 가장 작은 구역 공동체들이 적절히 활성화되는 문제가 교회가 외적 성장보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질적인 부흥을 위해 매우 결정적이라 믿어진다. 그러나 과거의 짧은 기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언젠가 다시 세속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가진 한국교회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모태로 이루어진 이민교회는 세속화될 가능성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조국과,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 문화와 환경을 떠나왔기에 기본적인 바탕의 체면과 예의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자유스러운 삶의 생활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민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역예배와 같은 소그룹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평신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은 전적으로 교인 각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구역예배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화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⁵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기독교 진리의 확신 가운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민교회의 특징중의 하나가 예배를 통한 교육과 훈련의 결정적 기회가 된다. 주일에 드리는 낮 예배와 저녁예배 그리고 수요일예배 등과 마찬가지로 구역모임으로서의 예배의 활성화는 성도들의 신앙의식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신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구원의 확신과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구원에 대한 불타는 소명감을 불러 일으켜서 전도의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소 그룹인 구역예배는 교회성장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역예배 모임의 활성화는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모태로 한 이민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중요한 요소로 믿어진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역예배 모임을 통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구역예배 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⁵옥한흠, *평신도를 깨워라*, 서울: 두란노서원, 1985, 24-8.

D. 연구가설

이 논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의 셀 교회 지침서인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위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대형교회로서 영향력을 가지지만 대형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적인 모델의 소그룹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 성도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예배와 같은 소그룹의 활성화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알게 됐다.⁶

랄프 네이버는 말하기를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체된 구역 소그룹의 프로그램 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소그룹으로서의 구역 모임에 셀 모임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구역으로 이를 수 있다. 교회는 생명체이므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성장이 멈추어 정체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논문을 전개하려 한다.⁸ 이 논문은 전통적인

⁶Ralph Neighbour W, *셀교회지침서(Where do we go from here)*정진우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2.

⁷Ibid, 13.

⁸임석중, *생동하는구역부흥하는교회*, 서울: 두란노, 2002, 14.

프로그램 교회를 셀 교회로 완전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구역모임에 도입하는가를 주요 논점으로 삼겠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인터넷 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현대 사회의 조건에서 사람들의 편견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그룹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고자 한다.

E. 연구방법 및 범위

소그룹 구역 공동체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소그룹 구역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한국교회의 소그룹 구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장 단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성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그룹목회를 연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논문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연구를 위한 더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행해진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의 해결 방안으로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에 관한 주요한 서적으로는 문병하의 "교회성장과 목회리더십",

복음주의 교회성장학,⁹ 크리스천의 리더십,¹⁰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¹¹ 안재은의 소그룹 목회 원리와 프락시스,¹² 채이석의 소그룹의 역사,¹³ 빌 도나휴와러스 로빈슨(Bill Donahus&Russ Robinson)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라(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¹⁴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의 셀 교회 지침서 인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¹⁵ 지미 롱(Jimmy Long)의 소그룹 리더 핸드북(Small Group Leaders Hand Book: The Next Generation),¹⁶ 로버트 J 뱅크스(Robert John Banks)의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사상(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 in their Historical Setting),¹⁷ 빌 헐(Bill Hull)의 변혁 21 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Survival Strategies of The

⁹ 문병하, *교회성장파목회리더십*,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¹⁰ 문병하, *크리스천리더십*, 파주시: 도서출판목양, 2011.

¹¹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d)* 정진우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¹² 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¹³ 채이석, *소그룹의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¹⁴ Bill Donahus&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교회를세워라(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¹⁵ Ralph NeighbourW, *셀교회지침서(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¹⁶ Jimmy Long, *소그룹리더핸드북(Small Group Leaders Hand Book: The Next Generation)*, IVP 자료개발부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¹⁷ Robert John Banks, *바울의그리스도인의공동체사상(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 in their Historical Setting)*, 장동수역, 서울: 도서출판여수문, 1991.

21stCentury Transformational Church),¹⁸ 칼 조지(Carl F. George)의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¹⁹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교회성장원리(Your Church Can Grow),²⁰ 데이빗 학킹(David L. Hocking)의 교회성장
 중심의 성경적 목회방법(The World's Greatest Church),²¹ 진 게츠와 조 월(Gene A. Getz,
 Joe L. Wall)의 효과적인 교회성장 전략(Effective Church Growth Strategies),²² 조지 헌트
 3 세(George G. Hunter III)의교회성장과목회전략(CHurch Growth and Pastoral
 Strategy),²³ 캐럿스아이스노글(Gareath W. Icenogle)의 소그룹사역을위한
 성경적기초(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²⁴등이 있다.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연구를 증명하기 위하여, 문헌들을 통하여 소그룹

¹⁸Bill Hull, *변혁 21 세기교회의생존전략 (Survival Strategies of The 21stCentury Transformational Church)*, 마영례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2006.

¹⁹Carl F. George, *성장하는미래교회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²⁰ 피터와그너(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²¹David L. Hocking, *교회성장중심의성경적목회방법 (The World's Greatest Church)*, 편집부역,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4.

²²Gene A. Getz, Joe L. Wall, *효과적인교회성장전략 (Effective Church Growth Strategies)*, 김현희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2001.

²³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과목회전략 (Church Growth and Pastoral Strategy)*,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광림, 1987.

²⁴Gareath W. Icenogle, *소그룹사역을위한성경적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역, 서울: SFC 출판사, 2007.

으로서의 구역공동체 기능 이해를 위해 연구하고 소그룹으로서의 구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연구하여 건강한 소그룹 구역 공동체 로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구역활성화 방안과 필요에 대하여 이민교회들을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을 통한 설문 조사하여 그 설문조사 내용으로 구역 활성화 방안과 필요를 다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전체 7 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 1 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동기, 연구목적, 연구가설, 연구방법 및 범위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힌다.

제 2 장은 이 주제의 기초가 되는 소그룹 공동체의 신학적 이해를 위해 삼위일체의 공동체신학, 교회의 공동체 신학, 공동체의 목표, 공동체 위기에 있는 한국(이민)교회의 과제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소그룹목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아닌 성경적 본질이라면 그 성경적 근거와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목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성경적 근거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소그룹 목회를 통하여 고찰할 것이다.

제 4 장은 소그룹 공동체의 역사적 이해를 돕고자 소그룹의 쇠퇴와 수도권운동,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의 소그룹, 웨슬레의 속죄, 현대의 소그룹 운동들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제 5 장은 소그룹으로서의 구역 공동체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배와, 교제, 전도, 기도, 관리 등을 살펴보고 교회성장을 가져오는 소그룹 목회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6 장에서는 소그룹으로서이 구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역예배의 정의, 한국교회 구역의 역사, 교회 성장에 미친 구역의 영향, 리더의 훈련,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21 세기 건강한 소그룹구역공동체로서 다시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7 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날의 이민 교회에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하였고 이어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에 제언으로 본 논문을 끝맺었다.

제 2 장

소그룹 공동체의 신학적 이해

소그룹목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신학과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소그룹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본질 자체는 삼위로 존재하면서 상호 협력(Intra-communication)"²⁵을 통하여 실현한다. 따라서 그 삼위가 공동체적이며 삼위 상호간의 교제와 사역을 통한 신비한 결합은 소그룹운동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교회는 성경적인 공동체이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분리되거나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된 공동체이다.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큰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 안에는 여러가지 유기적인 소그룹이 존재한다. 이 소그룹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 같이, 몸은 하나

²⁵ Joel Comisky, *사람들이 물려오는 소그룹 인도법(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도서출판 NCD, 2010, 213.

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다.²⁶ 하나된 공동체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이다. 성경에서 공동체의 원리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인 교회에 소그룹이 건강하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정의 없이는 교회와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도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을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본인이 연구하고자하는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더욱 성경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다. 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구역에 대한 성경적인 모습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삼위일체의 공동체 신학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신학” 즉 하나님과 그의 신격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 논증은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공동체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 될 안에 있는 신학적 복수 개념으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것은 성경 여러곳에 표현되어 있다(창 1:26; 마 3:16, 17; 마 28:19-20; 눅 1:35).

²⁶사도바울의 서신서(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콜로새서)에 나타나는 ‘몸’의 비유

게리스아이스노글(Gareath W. Icenogle)은 그의 논문에서 공동체의 삼위일체

신학(A Trinitarian Theology of Commun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구속 사역을 창조하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며 공동체를 변화 시키시며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시며 공동체를 창조하시며 공동체 속에 관계를 맺으시며 공동체의 이상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²⁷

게리스아이스노글(Gareath W. Icenogle)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가 소그룹

모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족과

그룹 그리고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상호교제(intro-

communication)”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도 상호교제적일

수밖에 없다.²⁸ 그러므로 교회도 단순한 “생물학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²⁹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서도

동역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³⁰

²⁷Gareath W. Icenogle, *Building Community Though Small Groups*, 4.

²⁸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28.

²⁹Ray S. Anderson,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203.

³⁰Georg Friedrich Vicedom, *Mission Dei; Einfubrung in eineTheologie des Mission*, (Munchen;

삼위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타락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소그룹과 관련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 게레스아이스노글(Gareath W. Icenogl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그룹은 문화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심지어는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인류 공동체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라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시하신 사역이다. 따라서 소그룹은 바로 하나님 존재의 본질과 목적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신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의 단순하면서도 자연적인 발현이 바로 소그룹모임이다.³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한일을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³²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처음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 함께 지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그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영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개인으로 창조하신 동시에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의 규정은 결혼과 교회에도 적용된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

Kaiser, 1975, 73. 그는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교이며,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³¹Gareath W. Icenogle, *Building Community Through Small Groups*, 31

³²Ibid., 32.

안에서 셋이신 것과 결혼한 두 사람이 하나 안에서 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분리된

개인들이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상호 연관시킨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 30-32).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기뻐하며, 교회 안에서 공동의 상호의존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소홀히 다룬다. 이상만은 "21 세기 사회는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소외, 고독감, 삶의 의미와 가치 상실과 영적 빈곤으로 지쳐있다"³³고 지적하면서 그럴수록 이들은 인간 내면을 추구하며 본능적으로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본질적 관계를 그리워하며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참된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 한다. 그것은 서로가 믿음과 진리와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소그룹 목회를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베르타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의 다음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외로운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내에서

³³이상만, *오이코스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20.

이루어지는 순례의 여행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만을 살아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도록 추구한다. 기독교의 초기 서신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앞선 공동체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삼위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전에 함께 계셨고,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함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분이시나, 이 한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 더욱이 그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³⁴는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온전한 공동체의 이상을 알게 한다.

서로간의 구별은 있지만 종속이 없는, 계급이 없는 '동등한 위로써 존제하시는 모습은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레이 앤더슨(Ray Anderson)은 "인간됨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창세기 1 장 26-27 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언급할 때 복수명사가 쓰였다는

³⁴Louis Berkhof, *기독교신학개론(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71.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 복수명사를 쓴 것을 놓고 볼 때 조심스럽게 “세 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사상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적어도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복수성과 이 복수성을 존재하게 한 형상과 모양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 섬세한 조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잘 알다시피 형상 (imago)이라는 말이 인간 개개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또한 “우리”로 표현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³⁵

그러므로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깊은 기반을 두고 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이시므로 그분께서는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B. 교회의 공동체 신학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신약성경에는 오직 하나 밖에 없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불러내거나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에는 115 번

³⁵ Ray Anderson, *On Being Human: Essay in Theological Anthropology*,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2, 73

나오는데 3 번은 회중(Assembly)으로 번역되고 112 번은 교회(Church)로 번역되었다.”³⁶

먼저 이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초대교회에서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한 기록은 전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함과 교제, 봉사와 섬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가 관계적 공동체가 되도록 창조하셨고 이러한 관계적
교회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를 반영하는 공동체
영성을 삶 속에 반영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 출발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실제적인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 장은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천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최초 설교를 듣고 응답했다(행 2: 5).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3 천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것이다(행 2:
41). 얼마 후에는 유대인의 박해로 그들은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사람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만 문제는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실제적인 교통이 있느냐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교회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³⁶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21

여러가지 교회상(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등)속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원리가 코이노니아이다. 교회는 공동체 혹은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이다.³⁷ 지미 롱(Jimmy Long)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공동체이다. 셋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린자아를 발견하며 세워가게 되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일치를 지키는 원리이고 동력이다. 코이노니아를 생명의 본질로 인식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사이에 함께하는 삶은 무한한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은 교회가 생명체와 같이 성장해 갈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의 소그룹이 시작은 매우 작지만 나중에는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마 4: 30-32).

생명의 회복이 있는 코이노니아적 공동체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적 삶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는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섬기고 나눌

³⁷Howard A. Syn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73.

³⁸ Jimmy Long,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28-9.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장이 되어야 한다.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Jr)는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풍성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실제적인 디자인이다³⁹라고 말했다. 소그룹목회는 익명성과 소외감이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따뜻하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제공해 준다.

이상과 같이 신론적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공동체를, 교회론적인 면에서 에클레시아를 통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 신학을 살펴보았다. 공동체인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삶을 나누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교제가 아니다. 온전한 코이노니아는 믿는 사람들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영역을 포함한다. 예수는 이 땅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땅에 오셨다(막 10: 45). 그가 성육신 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섬기는 본보기 들이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섬김의 절정에 이른 것이다.⁴⁰ 이처럼

³⁹Ralph W. Neighbour Jr, *새로운 삶의 안내*, 박영철역; 서울; NCD, 2000, 24.

⁴⁰채중성, "한국교회소그룹목회유형분석을 통한 교회성장방안" 충신대학교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13, 56.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다.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 25-37)에서도 예수께서 말한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성장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성도의 교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조적이 되었다. 주일에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교회로 착각하여,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만 강조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큰 공동체로 모임면서도 다시 작은 공동체로 모여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 18)고 하였다. 이 반석 곧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바로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성을 볼수 있다. 교회는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 곧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 한몸, 곧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공동체는 한낱 인간적인 공동체일 것이다.⁴¹

사도행전 2 장에 성령의 오심이후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 42)라고 하였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중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였기에 오늘 우리의 모델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비유중 '몸' 비유는 가장 특징적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공동체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을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이 반석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공동체이다.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전 10:17 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한

⁴¹ Ibid., 65.

것은 지체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함을 말하며, 그 전후 구절들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다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전 11: 29)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포함한 의미이다.⁴²

바울은 고전 12 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 몸된 공동체이기에 서로간의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낸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 12-13).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안에서 화목케 되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⁴³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인 몸의 머리시라'고 말함으로 '몸'의

⁴²Robert John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사상*, 장동수역, 서울: 여수론 1999, 104.

⁴³ 이창진,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 방안" 장로회신학대학교목회전문대학원, 국내박사, 2010, 36.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이 개념은 골로새서의 다른 곳에서 세 번 반복된다. '내가 그의 몸된 교회의 일군이 되었다'고 말하며(골 1: 24)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골 1: 19)고 말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의 머리로 다시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3 장에 그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지체들이라고 설명한다.

에베소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차원에서 뛰어나심이 재확인되고, 우주적인 능력들과 교회 위에 뛰어나심이 재확인되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자 위에 뛰어나시고'(엡 1: 21),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고 언급한다(엡 1:22-23). 그리고 후에 더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역의 결과로 교회안에 존재하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새로운 연합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엡 2:16; 3:6).

3.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주의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요 17: 11, 요 17: 21).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인하여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

11)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 21)

예수님은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뜻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 될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를 원했던 이유들을 우리는 같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⁴⁴ 세상으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누린 공동체를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공동체가 또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다.

뱅크스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것은 복음전도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⁴⁵ 이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대상은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는 것이니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17: 20)라고 하셨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상 있게

⁴⁴Ibid., 46.

⁴⁵Ibid., 57.

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한 선교의 공동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Koinonia)케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교제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저희들끼리 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고통 받는 이웃과도 교제토록 하셔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신다. 즉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 일뿐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와 섬김,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도 섬김이 있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2 장 42 절의 '서로 교제 하며'와 44 절의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에서 우리는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란, 종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횡적으로 성도간의 교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했던 것이다.⁴⁶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에는 영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의 세 차원이 있다. 영적인 교제는 성도들 간에 기도로서 영교하는 것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요 11:3, 빌 1:4). 정신적인 교제는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⁴⁶교리강해연구, 서울: 교리강해연구편찬위원회, 1989, 138.

있을 때 서로 위로, 권면, 격려하는 태도로써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지체를 세워주는 정신적인 차원의 교제(빌 2; 1-2, 고전 12;26, 롬 12; 15) 그리고 지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로서만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로 채워줌으로서 한 몸의 삶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물질적인 교제가 있다.⁴⁷

사도행전 2 장 47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분명 대 사회적인 섬김이 있음을 시사한다. 초대교회는 이기적인 교제가 아니라, 교인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 사회적인 고통과 나누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기에 사회적으로 칭송을 들었던 것이다.

C. 공동체의 목표

성경적인 공동체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이것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십자가의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축의 모양으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한다.⁴⁸

세로 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⁴⁷김현진, *공동체적인교회의회복*, 기독교사상, 1999,484 호, 31.

⁴⁸Gilbert Bilezikian, op, cit, 40-41.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전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가로 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모두가 서로 회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의 품안에서 한 몸이 되길 원하시는 상징이다.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적대감을 십자가에서 예수그리스도께서도말시킴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 서로 간의 화목한 온전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친목이나 교제만 있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인간 상호간의 교제없이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만 가지고도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다.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모두 화목한 공동체가 십자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이면서 이것은 또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할 목표이기도 하다.⁴⁹⁾

에베소서 전반부인 2 장에서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4 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자리아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⁴⁹⁾이전호, “교친환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학교목회전문대학원, 국내박사, 2015, 55.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 4: 12).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섬김과 훈련, 그리고 목표를 볼 수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 15). 몸은 유기체이다.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몸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닳아가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요, 공동체의 목표이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여러가지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는 곧 공동체의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화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성숙, 섬김이다.

공동체의 목표는 안으로만 자라가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회와 공동체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본적인지만 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바울의 서신들은 이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대부분의 내용은 외인들과 일반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⁵⁰

⁵⁰ Robert, Banks, op, cit, 112.

D.공동체 위기에 있는 한국 (이민) 교회의 과제

1. 공동체성의 위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적인 삶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부터 성도들의 신앙적 절정이 악화되고 교회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은 차츰 뒷전으로 밀려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교회의 본질인 그러한 공동체적 삶은 단절되어버렸으며 하나의이상적인 형태가 되어 버렸다.⁵¹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성의 상실이다.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서도 공동체성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파당 정치로 고착되어 있고, 교회적으로는 세계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거시적 안목으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전

⁵¹김현진, *공동체적인교회의회복*, 기독교사상, 1999, 38.

세계적으로 최고의 개신교 분열사를 경신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교회의 성장 비례해서, 명목상의 교인들이 증가하였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있다.⁵²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했던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에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삶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일까?

교회의 본질로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교회는 성장에만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아니 성장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용하였지만 교회의 본질로서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여왔다. 교회는 성장과 더불어 수직적인 신앙에만 치우쳐왔다.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와 가르침과 결단을 촉구했지만, 수평적인 성도간의 교제, 이웃을 향한 섬김에는 수직적인 신앙만큼 강조하지 못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공동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개인의 구원의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와 선교, 봉사와 훈련, 교제들을 온전히 이루어

⁵²찬진태, “지역교회에서 소그룹사역을 통한 전인적 영성 형성 모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국내박사, 2017. 78.

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교회의 존재양식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교회 및 한국이민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지나왔다.

앞서 십자가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세로축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지체들과 하나되는 것의 중요성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정신이 곧 공동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신앙의 자세로 회복되어야 한다. 로버트 뱅크스는 “복음이란 사람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한 데 묶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 용납된 사람들은 이미 그가 기꺼이 맞아 주신 또 다른 사람 등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였다.⁵³

공동체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예수 믿는 자들끼리만 아름답게 삶을 나누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교제가 아니다. 온전한 코이노니아는 기독교인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특별히 교회는 섬김에 대하여 너무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섬김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화해의 섬김이란 것이다.⁵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화해의 섬김은 그의 전 존재

⁵³ Robert Banks, op, cit, P,57.

⁵⁴ 진광석, “자연적교회성장원리를 통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국내박사, 2013, 104.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막 10: 45). 그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치유의 사역, 주린 무리들을 먹이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일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 이 모두가 사람을 섬기는 본보기들이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 놓으심으로써 섬김의 절정에 이른 것이다. 이토록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다. 강도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 25-37)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가를 알고 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성도의 교제에서도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성장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 되었다. 주일 하루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교회로 착각하며,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만 강조하여왔다. 이제는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큰 공동체로 모이고 다시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고, 이기적이고, 이웃도 모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신앙공동체를 외면 할 수 없다. 마땅히 한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하나의 희망을 준다. 희망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이 노력이 분명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신앙 공동체로서 열매가 있을 것임을 알게 한다. 진정한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온갖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근거로 하여 모이는, 모일 수 있는, 모여야 하는 공동체이다.⁵⁵

⁵⁵정훈택, *예수님은어떤공동체를원하셨을까*, 목회와신학 4 월호, 1999, 90.

제 3 장

소그룹 공동체의 성경적 이해

A.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구약에서 보여주는 소그룹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백성에게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거대한 국가 단위로 때로는 최소한 가족단위의 소그룹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에서 크고 작은 그룹의 개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가족'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염원이 '의로운백성'임을 알리시기 위해 '노아의 가족 소그룹'을 사용하셨다.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폭력과 무질서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다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과 그 계획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이라는 소그룹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창 12: 1-3)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소그룹의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맥브라이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여 민족과 지파, 종족, 집, 남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⁶

민족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 7: 6)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대가족으로 형성하였고(출 40: 38),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온 집"(히 3: 2,5) 이라고 표현하셨다.

지파 -선택된 이스라엘의 그룹은 다시 야곱의 12 아들에 의하여 하위 그룹, 즉 지파로 나뉘었다 (창 4: 9). 이후에 12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단위로 분리워지면서 가나안 땅의 분배 때에 명확히 의미가 확립되었다. 이 야곱의 12 아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기도를 이루게 된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라고 한다.⁵⁷

종족 - 각 지파는 다시 연관성이 있는 종족 단위로 세분화된다. 광야의 여정을 끝낸후, 12 지파 가운데 57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다. 이 종족은 대부분 야곱의 손자들과 12 지파의 대표자의 손자와 증손자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민 26 장).

집 -많은 종족들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소단위로 나뉘어졌다. 한 집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친척과 종들이 함께 살았다.

⁵⁶닐 맥브라이드, 김영수역,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영음사, 서울, 2015.

⁵⁷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장동수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4.

아버지 또는 남자 -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남자는 유대사회의 사고에서 가장 작은 소그룹으로 구별된다. 유대사회의 관념은, “-의 아들”, “-의 딸”이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아버지와 연결시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며,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곧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지도력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소그룹의 형태를 취함으로 지도력을 발휘한다(출 18 장). 모세의 지도력에서 소그룹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한 명 단위에서부터 오십명, 백명, 천명, 단위로 그룹을 나누었다. 소그룹을 통하여 출애굽의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1. 창세기에 나타난 소그룹

하나님께서서는 소그룹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존재와 관계성으로 표현하셨다. 창세기 1 장 26 절에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⁵⁸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⁵⁸닐 펠트브라이드, 14.

차준희는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보는 ‘우리’에 대한 해석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 옳은 방법이 아니다”⁵⁹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히브리어의 ‘심사숙고의 복수형’ 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복수형 형태는 ‘하늘 회의’의 장면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 장 1 절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관과할 수 없다. 우리 인간도 역시 스스로 살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다.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은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이다. 이 최초의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공동체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⁶⁰

닐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이 부부라는 소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여 가정이라는 그룹으로 그리고 지파(부족)로 그리고 군대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⁶¹고 주장한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으니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그들의 자녀는 시기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깨어진 관계로 신음하게 된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인간을 위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공동체를 세워 가셨다.

⁵⁹차준희, *창세기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5.

⁶⁰안재은, *소그룹과교회성장*,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57.

⁶¹닐맥브라이드, 15.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⁶²라고주장한다. 또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위해 아브라함, 이삭,야곱의 가족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일 하시는 것을 볼수 있다.

2. 출애굽기에 나타난 소그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소그룹 단위로 구성된 새민족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구약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부족 공동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장된 개인과 그룹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교육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중에 12 지파라는 소그룹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였다. 출애굽기 18 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백성을 치리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함을 보고 분담 제도를 권유하여 이 제안을 수용한 모세는 리더십을 위임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을 세워 그들에게 일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모세의 소그룹 구조는 위임형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모세 자신은 소그룹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모세의 소그룹 구조는 “은사 구조” 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⁶²닐맥브라이드,13-14.

있다.⁶³ 하나님은 모세 혼자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기술 등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하셨다. 은사 중심의 리더십 개발과 공동체성은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준 선물, 즉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이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고 교회성장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3. 역사서에 나타난 소그룹

성경속에서 소그룹 개념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거대한 국가 단위로, 때로는 최소의 가족 단위의 소그룹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맥브라이드는 “다양한 소그룹의 모습인 국가, 부족, 가문 또는 씨족, 가족, 아버지 또는 남자 등이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들의 모습”⁶⁴ 이라고 말한다.

역대상 12 장 32 절에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라는 말씀으로 보아 잇사갈 지파는 효율적인 리더십 체제를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였다.

사무엘과 그의 생도들과의 관계에서 소그룹 훈련을 살펴볼 수 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되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던

⁶³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25-7.

⁶⁴닐 맥브라이드, 13-4.

때였다. 사무엘은 이러한 신앙적 위기에서 선지 생도들을 선별하고 훈련시킴으로 야훼 신앙을 계승시켰다. 사무엘상 10 장 10 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라는 구절과 사무엘상 19 장 20 절에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라는 구절에 비추어 볼 때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으며 사무엘이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선지서에 나타난 소그룹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서 소그룹 제자훈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애굽과 앗수르 두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여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사 1: 2-4).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로 그의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했다. 이사야 8 장 16 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개봉하고 열어놓는 방식으로 봉함이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다.⁶⁵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

⁶⁵박윤선, 성경주석이사야, (서울: 영음사, 1980), 102.

증거의 말씀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소수의 무리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이 곧 소그룹 제자훈련이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⁶⁶를 그 핵심부분에 두었다. 이처럼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은 바로 이러한 소그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분담 조직의 원리”는 현대 교회의 소그룹 운동의 선구적 원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을 통하여 소그룹의 본질적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소그룹 구조 체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B.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1. 예수님과 12 제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과 12 제자 그룹에서 이 소그룹의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12 제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사역 하시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였고 함께 잠수시고 철저한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다. 존 맬리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사역이 소그룹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⁶⁷ “예수님께서서는

⁶⁶ibid., 60.

⁶⁷ John Mallison 의 소그룹 리더 핸드북, 1998), 28.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그룹공동체를 만든 것이다.⁶⁸ 그리고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 열두 제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부탁하셨다 (요 17). 하나 된 소그룹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임무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의 일을 소그룹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였다. 즉 이 그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위임하시면서, 왜 소그룹공동체로 이들을 부르셨을까? 우리들은 이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닐 맥브라이드는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소그룹에 집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⁶⁹ 왜 예수님은 소그룹 사역을 중히 여겼을까? 우리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소그룹의 모습에서 찾아볼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소그룹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소그룹을 통하여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열두

⁶⁸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62.

⁶⁹닐 맥브라이드, 19.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삶을 쏟아 부으셨다 (막 3: 13-14, 눅 5: 12-16). 이것은 하나된 소그룹이다. 닐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이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⁰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그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실때에 제자들을 불러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 사역을처음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막 4: 18-22, 눅 6: 13-16). 예수님께서 택하신열두 명의 그룹 구성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 2-4 에 소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틀을만드셨고, 이 틀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대그룹사역을소홀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무리들에게 나아갔으며, 큰 그룹과 소그룹 사역에 활동적으로 임하시되 소그룹이라는 효과적인 사역을 중히 여기셨다.예수님께서서는 소그룹을 통하여 스스로 본이 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들로 세상을 향하여 제자로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12 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리더도 있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12 명의 제자들을 4 명씩 또다시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시고, 베드로, 야고보, 빌립을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다.⁷¹

⁷⁰Ibid., 17.

⁷¹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18.

2.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복음 사역에서 소그룹의 의미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 나타난 소그룹공동체의 모습을 들 수 있다. 오순절 다락방을 근거로 해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와 전교, 성경공부와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적은 수가 가정에서 부터 모이기 시작한 교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교회이면서 동시에 가정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어떤 개인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이다.⁷²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델적인 온전한 소그룹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소그룹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성도와 이웃을 향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초대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1) 먼저 초대교회는 수직적인 신앙이 뜨거웠던 소그룹공동체였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 42).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였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 31).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사도의

⁷²닐 맥브라이드, 21.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며(행 2: 46)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서 있든지(행 5: 42)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날마다 가정과, 성전에서 모여 예배와 기도 전도에 힘을 다 하였다.

(2) 성도간의 교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충만한 소그룹 공동체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직적인 신앙이 뜨거운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도 않았다. 교제의 모습이 섬김으로 드러났다. 자원해서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누었다 (행 4: 34).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은 개념적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행 2: 44-45, 4: 32)라는 말씀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김현진은 “대사회적으로는 고통 받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함으로써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 즉 초대교회의 ‘성도의 고통’은 결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시적인 공동체성’이었다.”⁷³라고 초대교인들의 섬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코이노니아는 예수 믿는 자들끼리만 아름답게 삶을 나누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교제가 아니다. 온전한

⁷³김현진, *공동체적인 교회의 회복*, 기독교사상사 484 호, 1999, 31.

코이노니아는 기독교인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영접하여 돌봐주었으며,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 이삼일은 금식하였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롬 12: 13)라고 말한다. 이러한 공동소유적 삶의확장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위해 그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여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경우에서 나타난다(고후 8: 1-14).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교부들은 전해준다. 이러한 구제는 곧 사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회 선교의 발판이다. 저스틴은 또한 당시 성도들의공동체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⁷⁴

무엇보다도 부와 소유의 획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공동소유하고 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면서 우리의 동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생활습관이 달라서 한 번도 공동 유대를 이루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후로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산다.

(3) 칭찬을 받았고, 날마다 더한 소그룹공동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⁷⁴ Ibid., 34-35.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 42).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 47).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부흥하였다. 심창섭 교수는 “초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도덕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일종의 “상조회”처럼 보여졌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완벽한 제도나 조직의 위력 때문에 성장한 것은 전혀 아니다. 성장의 요인은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노예든, 부자든, 가난한자든, 하등 관계없이 “형제” 의식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그들을 결속시켰고 또한 그러한 삶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잉태시켰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장은 예배와 신실한 찬양을 통하여 고무된 성도들의 복음의 선포로 성장하였다.⁷⁵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찬송하는 예배 중에 탄생했다 (행 13: 1-3).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다 (행 4: 31). 초대교회는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여 갔다.

⁷⁵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KumRan출판사, 2001, 164-165.

3. 바울 사역에서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신약 성경에 수록된 대표적인 소그룹공동체,특히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역시 가정 교회였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조심스럽게 가정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 집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예배와 그외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⁷⁶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사도바울이마게도냐에서 전도하여 처음 설립한 빌립보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행 16: 11-15). 사도행전 6 장 40 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행 16: 14-15)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곳이 이미 빌립보 지역 교인들의 집합소 및 예배 처소인 가정 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가정교회로부터 성장해 간 것이다.

둘째, 소아시아(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의 에베소 소그룹은 아굴라와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전 16: 19). 이들 부부는 로마 태생 유대인으로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설립할 때 도움을 주었다(행 18: 1-4).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동행하여 에베소로 갔다가(행 18: 8) 거기서 아볼로를개종시켰으며(행 18: 26) 이후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자 로마로 돌아가서 활동하였고(롬 16: 3), 그로부터 약

⁷⁶정인찬,성서대백과사전,서울: 기독교회사, 1981, 783.

10 년후 다시 에베소로 이주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롬 16: 3, 딤후 4: 19).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여 에베소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셋째, 가이오 집에 고린도 소그룹(롬 16: 23)이다. 바울은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쓰인 '크세노스'는 '손님을 환대하며 대접하는 집주인'을 말하며 특히 가이오가 바울과 온 교회를 영접하며 대접했다는 것은 16 장 5 절과 15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서 집회 장소로 제공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가이오에 대하여 차정식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⁷⁷고 말한다(고전 1: 14).

넷째, 빌레몬 집의 소그룹인 골로새 교회(몬 1: 1-2)이다. 여기서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아킴보는 아들로 추측된다. 바울이 여기서 "네 집에 있는 교회" 라고 지적인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말한다.

다섯째, 늑바(Nympha)와 여자의 집에 설립된 소그룹인 라오디게아교회(골 4: 15)의 경우도 가정에서 시작된 소그룹이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하여 설립하였으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므로 잦은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한다.

⁷⁷차정식, *성서주석로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98.

론 투르딩거(Ron Trudinger)는 이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 사본(A)이나 에브라임 사본(C), 시내 사본(X)에는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눔바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로 되어 있고 베자 사본(D)과 보엘네리안 사본(G)등에는 ‘눔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로 되어 있다. 따라서 눔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개인인지 어떤 가문의 이름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여자의 집에 소그룹인 가정교회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⁷⁸라고 말한다.

한정애는 이처럼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적은 수의 무리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시작된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⁷⁹고 지적한다.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소그룹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성전교회와 가정교회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이다.⁸⁰

이와 같이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적은 수의 무리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와 교제를 하며,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시작된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졌다.

⁷⁸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Cell for Life*, 장동수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54.

⁷⁹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33.

⁸⁰닐 맥브라이드, 21.

초대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현대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대교회 소그룹 양육은 양육, 교제, 선교와 구제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즉 초대교회 소그룹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그 자체였다"⁸¹고 하면서 랄프네이버(Ralph W. Neighbour Jr)는 이러한 연합정신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이 신약성경에서도 형성 발전한 근거들을 볼 수 있다.

⁸¹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지침서*, 53.

제 4 장

소그룹 공동체의 역사적 고찰

소그룹공동체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도 소그룹목회 사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소그룹 목회 사역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이 역사적 연구는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다.

A.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구성은 12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누룩처럼 번식해 생겨난 소그룹이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양적, 질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던 비결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동하여 성장한 것은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통로가 되어 초대교회가 탄생하였다. 초대교회는 “적은 수의 무리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시작한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교회의 형태”⁸² 였다.

AD 2 세기까지 교회 생활의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로 모인 소그룹 형태였다.

⁸²한만오, *건강한미래형소그룹사역을위한효과적인전략*, 복음과실천신학, 제 16 권, 2008, 37.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은 없었으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가끔 “지하무덤”(Catacomb)⁸³에서도 만났을 것이다. 바울 때부터 3 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역시 가정교회 형태였다. 이때는 교회라는 공식적 건물이 아니라 특정한 가정에서 정기적인 교인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가정교회는 대략 30 명 정도의 교인들이 함께 했으며 그 친밀성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힘은 가족의 결속력에서 나타나듯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한 성도들은 자신을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이해”⁸⁴했다.

그러나 “313 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사라지자 공적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모임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때부터 교회는 건물이라는 잘못된 인식”⁸⁵이 생겨났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이 소원해졌는데, 이런 경향은 중세까지 소그룹 활동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함에 따르면 4 세기 이후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Organistic Community)가 아닌 ‘조직적인 공동체’(Organizational Community)로 바뀌기 시작하였다.⁸⁶

⁸³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159.

⁸⁴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73-74.

⁸⁵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69.

⁸⁶Bill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21 세기를위한교회갱신*, 터치코리아지역팀역, 서울: NCD, 2000, 59.

B. 중세 시대의 소그룹사역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에 이르면서 교회는 국가교회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서구적 기반 확립, 조직적 교회제도의 정비, 각 제국의 봉건적 군주제도의 교황권의 제휴로 서구사회를 기독교적으로 건설하였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생동력과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으며 소그룹의 다양한 모습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제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였다(A.D. 313 년). "기독교가 공인되자 교회는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교회의 모든 권위는 로마 교황에게 집중되었으며, 성직자와 평신도는 엄격히 구분되었다. 교회는 성서적 모습에서 벗어나 소그룹 모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⁸⁷ 그리하여 교회의 생명력도 점점 약화되었고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생동적인 모임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식주의와 제도주의로 흐르면서 세속화 되어 갔다.

1. 수도원 공동체

콘스탄티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고, 교회는 국가의 보호아래 부흥하고 평안하였다. 기독교 공인 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입교로 신앙생활의

⁸⁷ibid., 59.

타락을 초래하였고 유명무실한 신자가 많았다. 교회가 세속화되자 신실한 신자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별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수도원의 시조는 안토니(Anthony)⁸⁸로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은둔하여 수도사가 되었다. 이로부터 안토니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그들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지향했으며 초대 가정교회의 형태를 지녔다. 또한 “12 세기부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수도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생활을 강조했다.”⁸⁹ 수세기를 거치면서 ‘교회속의 작은 교회’가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회복을 불어넣었고, 이 때 생긴 ‘공동생활 형제회’(Brethren of the Common Life)는 루터(Luther)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후에 경건주의 운동과 모라비안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⁹⁰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부패한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여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공동체적 생활을 강조하는 운동을 일으킨 그룹들이 있었다.

⁸⁸ John Foster, 초대교회의역사, *The First Advance Church History*,심창집, 최은수역, 서울: 웨스틴민스티출판부, 1998, 197.

⁸⁹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침, 2010, 75.

⁹⁰최상태, *21세기신교회론, 이것이가정교회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77.

2. 왈도파(Waldenses)

왈도파는 12 세기 초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만들어진 소그룹이었다. “왈도(Peter Waldo)는 프랑스의 부자였으며 교회 안에서 부패의 모습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 했다.”⁹¹ 그는 1176 년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설교에 전념하였다. 설교에 감동한 사람들은 2 명씩 조를 구성하여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과 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그룹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성을 이루었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적 부패를 막고 교회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⁹²

3. 롤라드파 (Lollards)

영국에서는 위클리프(Wycliffe)의 영향을 받은 롤라드파(Lollards)라 불렸던 평신도 그룹들도 초대 가정교회 형태로 도시와 시골마을 집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모였으며, 이들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 하였다. “성도 각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운동은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소그룹은 종교 개혁이 있기까지 몇 세기 동안 유지되었고, 당시 소그룹은 교회의

⁹¹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랙시스*, 서울: 그리심, 2010, 76.

⁹²Ibid., 76.

타락과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⁹³

C.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

종교개혁의 배경은 “신지식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카톨리시즘(Catholicism)과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이 확산되었다. 또 중세의

봉건제도나 쇠퇴하고 중앙집권의 민족국가가 등장하고 신흥 상업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여 중세의 수평적 사회조직이 수직적으로 변화되었다.”⁹⁴

또한 르네상스 운동은 기독교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평신도들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반면 교회 권력의 남용으로 면죄부를 판매하였으며, 성직자 우월주의

사상이 만연해져 성직자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1. 마틴루터 (Martin Luther)

마틴루터 (Martin Luther)의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그룹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루터는 교회를 개혁함에 있어 예배의

구조를 개혁하기를 노력하였다. “루터는 ‘독일미사와 예배규범’이라는 글에서 세 가지

예배 형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⁹³ibid., 76.

⁹⁴채이석, *소그룹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00, 63.

첫째 라틴어로 된 공식적인 미사규범으로 예배하는 형태, 둘째는 독일미사와 예배규범으로 평신도들이 쉽게 예배하도록 만든 것, 세 번째는 가장 복음적인 규범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 3의 형태'의 예배로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공동체성 가정교회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⁹⁵

루터가 말하는 '제 3의 형태'는 교회 안의 교회로서 오늘날의 소그룹 모임을 가르킨다. 루터에 의해 나타난 종교개혁은 소그룹 사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평신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중세에는 교황의 권위로만 모임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만인제사장론"을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직 성서의 회복을 강조한 개혁가들의 주장에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실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요한 칼빈 (John Calvin)

요한 칼빈은 소그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강요 제 4 권 교회론에서 그가 주장한 성경중심의 예배, 말씀양육, 교제, 구제 등에서 전형적인 소그룹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⁹⁶

칼빈은 전통적인 카톨릭 미사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는 당시 상황 속에서 말씀 중심의 소그룹 예배를 드렸다. 이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자유롭게

⁹⁵Ibid., 70.

⁹⁶Otto Weber, *칼빈의 교회론*, 김영재역, 서울: 이레서원, 2001, 63.

토론하면서 드리는 예배였다.⁹⁷ 칼빈은 “의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성경중심의 예배를

참 예배로 보았고 교회 역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임으로 보았다. 그래서 미사

대신 말씀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⁸

3. 제 세레파

종교개혁운동이 유럽에 확산되면서 급진주의적인 개혁사상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제세레파였다. 이 종교개혁 기간에는 재세레파(The Anabaptists),

메노나이트파(The Mennonites), 아미쉬파(The Amish), 프랑스의 위그노파(The Huguenots)와 예수회(The Jesuits)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재세레파들은 초대교회 소그룰 운동의 회원으로 집에서 모였다. 물론 1592년부터는 국가법으로 제세레파는 사형을 당하는 외적인 박해의 이유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에서 모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바렛트(L. Barrett)는 재세레파들을 위하여 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배와 가르침을 위한 장소로서의 집은 이단을 박해하는 관청으로부터 피신하는 장소 그 이상의 것이었다. 집은 서로서로 보살피고 권면하며, 그들의 예배 모임에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자신을 바친 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다.⁹⁹

⁹⁷ Jean Cadier, *칼빈 하나님 이 궈들인 사람*, 이호갑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62.

⁹⁸ John Calvin, *기독교강요하권*, 김종흠외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3.

⁹⁹ 한징에,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66.

D. 경건주의 시대의 소그룹

정통주의 신학이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무시하고 너무 영적으로 건조해지게 되자 반동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작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⁰ 17 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퀘이커파(The Quaker)들과 미국의 경건주의자들(The Pietists)이 가정 모임으로 돌아갔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서연구반 같은 신앙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일어나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가속화 하였다.¹⁰⁰ 그 예가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다.

1. 필립 야콥 슈페너 (Philip Jacob Spener)

예수회에 속하였다가 개혁교회 목사가 된 슈페너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평신도들에게 오전 예배만으로는 영적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슈페너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며 이 모임을 '교회안의 작은교회'라고 말했다."¹⁰¹ 그에 의해 1670 년부터 시작된 소그룹 모임인 '경건의 모임'으로부터 경건주의라는 말이 나왔다. 17, 18 세기 모라비안(Moravian)의 경건주의(Pietism)자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고

¹⁰⁰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60.

¹⁰¹케이석, *소그룹의역사*, 84.

열정적인 경건한 합일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구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실제를 더 강조하는 작은 그룹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할레(Halle)대학을 세워 경건주의 운동의 본거지로 삼았다.’¹⁰²

2. 진젠도르프 (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와 모라비아형제단(The Unity of

Brethren)

진젠도르프는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경건주의자 슈페너와 친밀하였다.¹⁰³ 그는 10-17 세까지 할레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는 ‘겨자씨모임’을 결정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두드러진 업적은 모라비아 교회를 설립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할레대학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진젠도르프에 의한 모라비아형제단 운동이었는데 이 소그룹은 매일 모임을 가지며 친밀한 교제와 고백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의식이나 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산 믿음과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믿음의 소그룹이었다. 이 소그룹은 ‘형제의

¹⁰²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77.

¹⁰³채이석, *소그룹의역사*, 87.

연합'(Brotherly Harmony)이라 불렀다.¹⁰⁴

모라비안 교회의 형제들은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였는데 1726년에는 300 명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다음해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작은 그룹들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모라비안 교회의 중보기도는 그 후 백년이상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은 "1732 년 레나드도버(Leonard Dover)와 데이빗 리치만(David Richiman)을 서인도 제도에 파송하면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간다."¹⁰⁵ 이들 선교활동의 근본정신은 "주님께 사랑, 그리고 잃은 자를 위한 사랑"(Loveto the Lord, Love for the Lost) 이었으며 교회의 기초는 신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있다고 믿었다.

3. 요한 웨슬레 (John Wesley)

웨슬레는 청교도적인 부모의 영향 아래서 11 살이 될 때까지 보내면서 그의 인생 전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John Wesley)는 영국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소그룹과 진젠도르프에 의해 설립된 소그룹 '헤른후트'(Hernhutt)를 경험하고 이를 응용하여 '속회

¹⁰⁴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39-40.

¹⁰⁵Martin Schmidt, *경건주의, Pietism*, 구영철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99.

체제'(Class System)라는 소그룹을 만든다. 이는 감리교회의 유명한 소그룹 형태가 되었다.”¹⁰⁶ 요한 웨슬레의 교회론은 주로 성공회를 통해 전수된 가톨릭 전통과 모라비아 형제단을 통해 전수된 '신자들의 교회'(Believer's Church)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형제단(UnitasFratrum)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형태로 초대교회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었으며 개신교의 선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웨슬리의 '클래스 모임'(Class Meeting)은 일주일에 한번씩 12 명의 교인들이 모여 영적 강화를 도모하고 성장을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모임은 현대 상담학에서 집단정신 치료를 하는 '소그룹 운동'(Small Group Movement)과 '그룹 다이내믹스'(Group Dynamics)와 '엔카운트 그룹'(Encounter Group)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소집단뿐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으로 가난하고 병든자를 치유하였고 그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¹⁰⁷이런 형태의 소그룹 운동이 유럽의 경건운동을 주도하면서 웨슬레는 17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도 그 사역을 계속하였고 그의 사역의 결과로 캠퍼스 소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¹⁰⁶A. M. Renwick & A. M. Harman, *간추린교회사, The Churchage an Outline of Church History*, 오창윤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9, 71.

¹⁰⁷채이석, *소그룹의역사*, 113.

E. 근대와 현대의 소그룹 운동

“중세와는 달리 근대와 현대는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유의 시대이며 이것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사고가 신 중심적 사고(Theocentric Thinking)에서 인간중심적 사고(Anthropocentric Thinking)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¹⁰⁸ 제롬 프랭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폐로 인한 인격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그룹”(Healing and Recovery Small Group)을 주장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감정, 경험들을 서로 친밀하게 나누는 것은 자존심을 높여 주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해주며,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경험은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⁰⁹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캠퍼스 소그룹 운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최초의 대학생 캠퍼스 소그룹은 17 세기 초 독일 루배 출신의 7 명의 법학도로부터 출발하여 1700 년대 확산되어 프리스턴, 윌리엄스 메리, 펜실베니아, 브라운 대학 같은 캠퍼스에서 소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1805 년 윌리엄스 대학에서 영적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5 명으로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는 세계선교의

¹⁰⁸ 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사역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73.

¹⁰⁹ 하워드 J. 크라인벨, *현대목회상담학*, 박근원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225.

영향을 주었으며¹¹⁰ 1844 년 London 의 George Williams 의 방에서 12 명의 청년들이 모인 소그룹운동인 YMCA 운동과 1921 년 Franck N.D. Buchman 에 의해 시작된 옥스퍼드 그룹운동 즉 MRA(도덕재무장 운동)도 소그룹운동의 결실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의 수많은 소그룹 활동인 가정집회, 형제공동체, 청년연합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¹¹

선교 단체들도 대표적으로 “1951 년에 빌 브라이트(Bill Bright)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생 선교회’(C.C.C), 1934 년 도슨 트르트맨(Dawson E. Trotman)에 의하여 설립된 ‘네비게이토 선교회’(The Navigators), 1887 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합 기독교학생연맹에 기원을 둔 ‘기독교학생회’(I.V.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조이선교회’(Joy Mission), ‘한사랑선교회’, ‘예수전도단’, ‘Y.F.C.’(Youth for Christ), ‘S.B.F’, (Student Bible Fellowship)등이 있다.”¹¹² 더 나아가서 “셀, 알파코스, G12 등에 많은 소그룹이 등장하여 교회에 21 세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활력소가 되고 있다.”¹¹³ 이제 소그룹 활동이 전 세계 교회에 퍼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볼때 빌

¹¹⁰ 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Small Group Hand Book, IVF* 자료개발부편역, 서울: IVF 자료개발부, 2000, 37.

¹¹¹ 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79.

¹¹² Bill Hull, *변혁 21 세기교회의 생존전략*, 마영래역, 서울: 디모데출판사, 1990, 234.

¹¹³ Ibid., 234.

헐(Bill Hull)의 말처럼 '소그룹은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도전적인 갱신을 일구어낸
견인차였다.

제 5 장

소그룹 목회와 교회 성장

A. 소그룹 목회에 대한 이해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은 익숙한 개념임에도 다양한 용어와 정의가 존재한다. 소그룹의 정의는 그 목표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의미를 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활동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에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역할과 목적이 있다. 존 테리(John M. Terry)나 양병모 등은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류의 기독교 기초 공동체를 망라해 '소그룹'이라 정의한다.¹¹⁴ 게레스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이란 서로의 발전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나누는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할 수 있는 모임이다"¹¹⁵라고 정의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교회안의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인 조직이다"¹¹⁶라고 주장했다. 소그룹은 교회내의 새로움을 위한 은사의 발견과 사용에

¹¹⁴John M Terry, *셀교회론, Church Evangelism*, 박명철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230.

¹¹⁵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Illinois: IVP, 1994, 14.

¹¹⁶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이강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159.

최대의 희망을 제공하여 준다. 회중 생활의 새로운 구조는 인간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기기만과 불신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소그룹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많지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소그룹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은 닐 맥브라이드(Neal McBride)의 정의라 생각된다. 그는 소그룹에 대해 “교회안에서의 소그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간의 성장과 교제를 목적으로 3-12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 회합을 갖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모임이다¹¹⁷”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정의는 소그룹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이어야 하는가? 소그룹 모임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소그룹의 동기는 무엇인가?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닐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소그룹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콘텍스트(Context) 안에 있는 그룹” 이라고 하였다. 교회 안에 있는 그룹은 다른 어떤 그룹들과는 달리 영적인 차원과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성경적인 가치와 표준 아래서 존재하고 작용한다. 그리고 소그룹의 크기는 3-12 명으로 3 명 이하이면 너무 작고 12 명 이상이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목표를 이루기도 어려워 모임의 역동성을 잃게 한다. 따라서 12 명 이하가 가장 이상적 소그룹이 될 것이다.

¹¹⁷닐맥브라이드, 김영수역,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24.

소그룹의 모임 빈도는 정기적이며, 동기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개인적인 만남보다 효과적이며,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영적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소그룹은 성령의 지도와 성서의 규범아래서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됨과 그의 풍성한 삶을 누림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업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3-12 명 정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이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소그룹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도적인 모임이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하여 성장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모임이다. 소그룹은 단순히 소수의 사람이 모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 기도모임, 성경공부모임, 친교모임 등은 소그룹이라 할 수 없다. 소그룹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자신을 재생산시켜야 하며 예배, 전도, 교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소그룹의 구성요소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소그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변화와 성숙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소그룹사역이 가장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2 장 42 절-47 절에서 초대교회 소그룹 사역에 나타난 특수한 구성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온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 42-47)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전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 소그룹 목회 사역에도 중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양육

양육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¹¹⁸이다. 예수는 그의 열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요 14: 25-25, 15: 1-11). 그리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를 기억하며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해 갔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여
따르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¹¹⁸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47.

온전히 힘썼다.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의 소그룹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에서 말씀 공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나라와 사회에 대해 정의를 부르짖기도 한다. "말씀공부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부른 목적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교제는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의미한다."¹¹⁹

소그룹에서는 각자가 발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체험 속에 스며들어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 생활을 공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사된 자기의 삶의 진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소그룹은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훈련장 이어야 한다.

울트룬드(Anne Ortlund)가 제시한 성경공부 방법론을 보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¹¹⁹John F. Macarthur, *주님의교회계획*, 최지남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95.

한 번 만나 그들의 실수를 고백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한 그룹의 인원은 5 명-10 명 정도가 적당하며 찬양과 기도로 모임은 시작되어야 하고, 각 구성원들은 지난 시간 이래로 그가 겪었던 시험과 구원의 손길들을 서로 나뉘어야 한다”¹²⁰고 말한다.

이렇듯이 소그룹에서 말씀공부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수 있으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나게 한다. 또한 황폐한 삶을 풍요롭게 하여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한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그룹 말씀공부는 지식 전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

(2) 예배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며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반응”¹²¹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Biblical Worship is for God). 소그룹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분을 찬양하고 그 분께 사랑과 경외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¹²⁰ Anne Ortlund, 소그룹지도를통한신앙훈련, (Anne Ortlund Discippling One Another, 편집부역, 서울: 보이스사, 1986, 9.

¹²¹ 문병하, 그리스도의교회예배학, 서울: 그리스도대학교출판국, 2008, 32.

페리 코담(Perry C. Cotham)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만한 분이며,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과 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¹²²이라고 한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한 결과였다.

이처럼 건강한 소그룹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예배와 소그룹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그룹목회의 특징은 전체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는 대모임과 소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교제를 나누는 모임으로 구분한다. 공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지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으나 소그룹에서는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며, 전인적인 치유와 교제의 예배가 가능하다.¹²³ 소그룹목회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예배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소그룹목회를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 것이다. 기독교 예배 모임이 세신자들이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기 위해서,

¹²²Perry C. Cotham, *오늘의 예배학, Ending Worship Wars Through Sound Theology and Plan Common Sense*, 정남수, 문병하역, 서울: 그리스도대학교출판국, 2004, 30.

¹²³이성희, *미래목회대에언*, 서울:규장문화사, 1998, 129.

예배는 소그룹목회 사역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예배는 공동체적 교제, 양육, 전도, 선교와 관련해서 예배할 때 양육이 이루어지며, 전도와 봉사하기 앞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을 주는 요체가 된다.

“소그룹에서의 예배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능력이 나오고 사람의 목적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¹²⁴ 소그룹 예배에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로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3) 공동체적 교제

인간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자기의 고민 등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소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모임을 유지한다면 서로 인격적인 친밀감이 더해져 각각의 구성원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적 교제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경험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지미 롱(Jimmy Long)은 “참된 공동체적 교제를 누리지

¹²⁴문병하, *그리스도의교회예배학*, 56.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됨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¹²⁵고 한다.

“조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것처럼 구원에 대한 다양한 공통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제에 힘쓰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¹²⁶ 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행 2: 44-45)에 잘 나타나 있다.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양육과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누리는 교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올트룬드(Anne Ortlund)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갖는 마땅한 의무나 사랑의 수고에 따르는 헌신과 같은 감정에 가깝다”¹²⁷고 한다. 소그룹 목회를 통한 이러한 감정에서 출발된 공동체적인 삶의 결과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조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명성훈은 이에 대하여 “서로

¹²⁵ 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43.

¹²⁶ *ibid.*, 42.

¹²⁷ Anne Ortlund, *소그룹치도를 통한 신앙 훈련*, 29.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공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자 서로 통용하는 것¹²⁸이라고 한다. 김문현은 “이 공동체는 연합하는 한 마음의 공동체였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였고, 한사람이 모든 사람이었으며 이는 함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활은 공동체적 사역이었다”¹²⁹고 말한다.

소그룹에서 구성원은 서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 즉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공동생활에서 과부들과 굶주린 형제들에게 기부를 통하여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나눔을 게리 쿤(Gary W. Kuhne)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¹³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 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동의한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¹³¹고 말한다.

¹²⁸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49.

¹²⁹김문현, *가슴으로 읽는 사도행전*,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9, 47.

¹³⁰Gary W. Kuhne, *제자훈련제작과진행, The Dynamics Of Persona Follow-up*, 엄종오역, 서울: 나침반사, 1986, 43.

¹³¹Ibid., 44.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서로의 삶에 역동적으로 개입할 때 공동체적 교제를 이룰 수 있다”¹³²고 말한다. 그의 주장처럼 공동체적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 해야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어를 터놓아야 하며, 서로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은 그 그룹 자체의 필요를 채우거나 상호간의 배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전도

모든 기독교의 소그룹에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도가 두렵고 때로는 막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주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전도 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다(행 14: 23).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가 떠난 후에도 불신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소그룹 전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³³고

¹³²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29.

¹³³ 최종상, *복음이불신자를만날때바울의사역을중심으로*, 목회와신학편집부, 전도, 목회와신학총서 0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1.

최종상은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여 사회와 개인을 변화시킬 통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때 우리 모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능력은 세상 끝까지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미 롱(Jimmy Long)은 “초대교회 소그룹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선행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서 그들 자신을 넘어서 외부로 그 영향력을 끼쳤다”¹³⁴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한 소그룹 구성원들의 태도는 성경으로부터 깨달은 것에 대한 순종과,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하는 열정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그룹을 구성하고 유지시켜 주는 네 가지 구성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요소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는 그룹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부각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결합되어야 성장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다. 론 리콜라스(Ron

¹³⁴Jimmy Long, *소그룹리더 핸드북*, 57.

Nicholas)는 이들의 상호 작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공동체적인교제를강화하며, 긴밀한 공동체적 교제는 예배 의식을 고양시켜 주고, 예배는 양육에대한 하나의 반응이자 진정한 예배는 전도의의식을 일으킨다. 양육은 전도에 힘을불어 넣어 준다. 전도는 공동체적 교제를 강화시켜 주며 전도의의식이 부족할 때 공동체적 교제도 약해진다. 공동체적 교제가 강력해야 커다란 선교 과업도 성취할 수 있다.¹³⁵

이상에서와 같이 소그룹의 구성요소인 양육, 예배, 공동체적 친교, 전도는

독립적인 것도 아니요 어느 하나만 강조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서로간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 지지하고 보완하며 하나님을 중심한동심원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절절히 조화롭게 구성된 소그룹 활동을 통해 그 소그룹을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3. 소그룹 목회의 역동성(생동감)

오늘날 사람들은 익명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해 보아야 직장 동료이다. 불행이도 개인간의 친밀한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은 교회 안에서 스며들었다.¹³⁶ 사람들은 교회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뿐 상호 대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주어진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¹³⁵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40.

¹³⁶Carl F. George 외 5 인, *소그룹사역의세로운방향, New Direc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한국소그룹목회연구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4, 132.

나가는 지역 교회에서 영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 교회들이 지녀왔던 특성인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다.”¹³⁷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은 가정 단위로 모이는 소수의 그룹이었다. 소그룹의 특징은 강의와 토론이 가능하며, 대그룹에 비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모임은 소그룹 형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그룹은 치유의 장으로도 유용하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소그룹에서의 친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일을 한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성격이 서로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상당기간 긴장과 갈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룹에 대해 애착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서로 나누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소그룹 목회의 역동성(Dynamics)”¹³⁸이라 한다. 하워드

¹³⁷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133.

¹³⁸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133.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소그룹 목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소그룹 목회에는 융통성이 있다. 모임의 순서를 변경하여 참석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소그룹 목회에는 이동성이 있다. 모임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소그룹 목회에는 수용성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소그룹 목회는 인격이다. 모임에 헌신한 사람들의 현실적 부분까지 서로 나눌 수 있다. 소그룹 목회는 모험이다. 서로간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부딪힘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이 발견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소그룹 목회는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¹³⁹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닌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 할 수

있다. 교회를 조직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교통으로서 이해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대형교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했으며, 주일만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와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소그룹 목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1) 효율적인 소그룹 목회 역동성을 위한 원리

교회에서의 소그룹의 역동성이 삶과 사역에 즉각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역동성이란 모든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무엇을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소그룹은 전체된 유기체가 아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하게 되거나

소유하기 싫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¹⁴⁰ 그룹은 항상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¹³⁹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35.

¹⁴⁰Clyde Reid, *소그룹이살면교회가산다*, 1969, 46.

행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움직임의 성격과 방향은 그룹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작용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¹⁴¹ 역동성의 역할에 관한

클라이드 레이드(Clyde Rei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역동성이 그룹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 그룹을 지배하는 감정적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역동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분위기가 그룹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룹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함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곧 역동성의 역할이다.¹⁴²

소그룹의 가장 매력 있는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다. 소그룹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네 단계를 통해 성장해 간다. 네 단계는 각각

시작, 갈등, 조화, 마무리 단계이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한 단계씩 발전해 가지만 갑자기

두 단계 뒤로 물러가 어떤 단계로 고착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소그룹은 이 네 단계를 모두 순서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소그룹의 발전 단계”는 무엇인가?¹⁴³

1 시작단계

탐색의 단계로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면서도 약간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시기이다. 소그룹의

¹⁴¹Malcolm S. KnowelsHulda, *그룹다이나믹스입문*, 이수민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5, 8.

¹⁴²Clyde Reid, *소그룹이살면교회가산다*, 48-9.

¹⁴³Jimmy Long, *소그룹리더핸드북* 140.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등 희망에 찬 기대의 시기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면서 소속감을 고취시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속감을 느끼며 사랑받고 싶은 동시에 상처 받고 실망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 내적갈등이 생기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리더는 구성원들이 시작단계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탐색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갈등 단계

갈등의 단계로 시작 단계부터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면 보다 깊은 관계와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¹⁴⁴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구성원들이 가지는 궁금증은 왜 이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까? 내가 더 솔직해 질수 있을까? 이 모임에 헌신할까? 등 주인의식 혹은 더 깊은 신뢰와 관계되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감이 커지고 자신을 열고 솔직해지는 단계이다. 갈등기는 분명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단계를 거친 후에는 더 깊고 솔직한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3 조화 단계

조화의 단계로 안정단계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¹⁴⁴전중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서울: 도서출판학지사, 2005, 125-7.

안정되었고 미래에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진다. 다양성은 힘을 산출하고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이제 구성원들은 서로를 섬기며 모임 밖에서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 단계에 오면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맡아 기꺼이 섬기려 한다. 이 때 리더는 구성원들이 친해졌고 더 많은 활동에 열의를 내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소그룹에 준 일을 선별해 내도록 도와야 한다. 구성원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4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따른다. 마무리를 하면서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한 영역들은 과제로 남을 수도 있다. 계획된 마무리 시간은 향후의 그룹의 방향은 물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는 평가, 축복, 감사의 세 요소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 보고 비판적이고 솔직한 평가는 더 나은 소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축복은 구성원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소그룹과 구성원 각자에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연길은 “효율적인 소그룹 목회 역동성의 원리 세 가지 즉 소그룹 역동성과

구성원의 관계 문제, 지도력의 문제, 내용의 관계 문제를 주장한다.”¹⁴⁵ 소그룹은 개인이 모여서 형성된다. 따라서 그룹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행동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예는 인생의 경력, 심리적 요구, 그룹에 기대하는 목표와 이념으로부터 오는 힘, 무의식적인 마음속에 숨겨진 장애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룹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룹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장벽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소그룹 목회 역동성에 의한 참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그룹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나 그룹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에 따라 그룹의 성패가 좌우된다.”¹⁴⁶ 리더의 헌신된 지도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리더의 성품은 신실함과 강인함을 수반한 신뢰성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대화나 진행을 독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떤 리더인가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단지 민주적인 방법 안에서 리더의 존재를 의미할 뿐이다.”¹⁴⁷ 아울러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다.

¹⁴⁵이연길, *소그룹성서연구의이론과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3, 42.

¹⁴⁶문병하, *크리스천리더십*, 96.

¹⁴⁷이연길, *소그룹성서연구의이론과실제*, 50.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인도할 때 리더는 항상 성경을 주 교제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해야 하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분위기, 내용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리더가 이러한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선숙은 소그룹의 "역동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그룹이 왜 모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룹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조직적인 그룹 활동이 되어야 하고, 그룹의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좋은 규범이 설정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골고루 역할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의사 결정시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친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¹⁴⁸

(2) 소그룹 목회의 역동성과 성령

일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교육의 3 요소는 교사, 학생, 교재이다. 이것을 소그룹 성경공부에 적용시키면 교사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학생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될 것이고,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성경공부에는 위의 세 가지 요소 외에 "성령의 부어주심"의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이 죽(Roy B. Zuck)은 "기독교

¹⁴⁸최선숙, *소그룹운영*, 서울: 기독교교육사, 1982, 85-7.

교육을 활력있게 하는 필수적인 3 대 요소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중심, 중생의 필요성, 성령의 사역¹⁴⁹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4 대 기본 요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교사, 학생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볼 때 소그룹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¹⁵⁰

이연길은 소그룹에 대한 성령의 역할에 관하여 “소그룹 공동체의 친교 측면에서 성서연구와 성령의 역할, 소그룹 역동성 측면에서 소그룹의 일체감과 의사소통 모두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령 없는 소그룹의 역동성은 생각할수 없을 것이며, 성경해석 측면에서 성령의 해석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어야 함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는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¹⁵¹고 강조한다.

과학 기술이 발달 할수록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21 세기에는 더욱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모임은 형식적인 성경공부 모임이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모임도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피상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소그룹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갖게 하며 소그룹의 본질을 구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¹⁴⁹이연길, *소그룹성서연구의이론과실제*, 42.

¹⁵⁰최종상, *복음이불신자를만날때바울의사역을중심으로*, 목회와신학편집부, 진도, 25.

¹⁵¹이연길, *소그룹성서연구의이론과실제*, 61-3.

B.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1. 교회 성장의 의미

교회성장의 의미가 왜곡되어 숫자적 성장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을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설득하지 않은 회중은 종교적인 클럽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이다"¹⁵²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교회 성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종생을 위한 구원화, 양육을 위한 제자화, 선교를 위한 사회화가 바로 교회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도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교회의 수적증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면적 성장을 의미한다"¹⁵³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 성장에 대하여 내적 성장과 양적성장, 개척 성장과 교량적 성장으로 교회의 성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내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¹⁵²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전재욱외역,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2001, 77.

¹⁵³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141.

만드는 것들을 의미한다. 둘째, 양적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개 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개척성장은 복음 증거의 결과로 개 교회 성도의 수적증가가 아니라, 새로이 개척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하나의 개척 교회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교량적 성장은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이지만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 타문화권 교회 개척이라 할 수 있다.”¹⁵⁴ 이와 같이 교회 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소그룹이 교회의 성장에 다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2. 소그룹 목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중요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이 총체적으로 교회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피다는 뜻은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핀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에서도 상하 수직적 조직을 개편하고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그룹 개념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오늘날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소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소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갈증 때문이다. “교회의 기능은 성도들의 구원만을 선포하는

¹⁵⁴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111.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전체적 삶을 통전적으로 살피며 전체적 삶의 환경이 생태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¹⁵⁵

(1) 시대적 요구

현대를 사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 소그룹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21 세기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키 워드(Key Words)가 소그룹을 통한 개개인의 건강한 신적요구(Divine Need)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질문은 소그룹의 중요성을 묻는 다른 어떤 질문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교회의 성장이란 결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의 성장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소그룹을 강하게 원한다. 왜냐하면 하이테크 시대에서 사람들은 하이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 속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어떤 정보를 가졌느냐가 우위를 가리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홍수를 이루고 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에서 바르고 건강한 말씀은 어디서 접할 수 있을까? “가슴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신뢰감 있는 소그룹에 속하고 싶어한다.

¹⁵⁵ 김재은, *교육목회*, 서울: 성서연구사, 1998, 13.

그 소그룹이 교회의 소그룹일 경우 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¹⁵⁶

클라이드 리드(Clyde Reid)는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왜 소그룹이 교육 현장에 그토록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굶주림 때문일 것이다.”¹⁵⁷라고 말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한다. 사람들은 급박하게 변하는 대중 사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소그룹은 또한

수백, 수천 명의 군중들 속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의 인간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현대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친밀한 인간관계의 가증을 느끼게 하며, 또한 더욱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기를 열망할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소그룹모회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목회 현장이 다변화, 다양화, 전문화’¹⁵⁸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¹⁵⁶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4.

¹⁵⁷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셉역, 서울: 름린출판사, 1996, 15.

¹⁵⁸ Ralph W. Neighbour Jr, *셀교회,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역, 서울: NCD, 2001, 33.

목회자 혼자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목회에 참여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런 목회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에서 가능하다.

서로를 돌아보는 목회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그룹에 더 강조점을 둔다. “대그룹은 주일 예배를 위한 모임그룹인 반면 소그룹은 3 명에서 8 명 선에서 시작하여 15 명이 되면 번식한다. 이들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기독교의 기초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은 독립적이지만 전체 교회의 목회적인 지도를 받는다.”¹⁵⁹

서로를 돌아보는 목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을 본받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먹고(행 2: 46), 서로 가르치며(20: 20; 롬 1: 15), 물질과 영적 축복을 서로 나누고(행 2: 44-45), 함께 기도하는 것(행 2: 42)을 중요한 과제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들은 영적 가족과 같다. 이들은 매일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여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간다. 구성원 모두가 목회자이며 제사장이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책임을 진다.¹⁶⁰

현대인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¹⁵⁹ibid, 339.

¹⁶⁰박병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136.

이러한 바탕 위에서 소그룹 목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서로를 돌아보는 목회는 습득한 기술에 목회사역의 근거를두지 않는다. 이 목회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가시화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이 서로를 돌아볼 의무가 있다는 말은 모든 교인은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모든 세례교인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신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¹⁶¹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이웃을 섬길수 있는 초대교회적인 소그룹목회는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영육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 교회성장을 위한 요구

교회에서 소그룹목회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소그룹목회가 교회의 총체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클레이드리드(Clyde Reid)는 소그룹목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교회의 놀라운 사역들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칼 조지(Carl F. Geprge)는 소그룹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 내의 작은 그룹을 부르는 용어는 ‘소그룹’ 혹은 ‘셀 그룹’(Cell Group)또는 ‘구역’ 등 수없이 많이

¹⁶¹ 김한옥, *목회의개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목회학, 서울: CLC, 2009, 28.

있다. 아무튼 나는 이 소그룹이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영적 발달과 동화, 복음전도와 리더십 개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매우 중요한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바로 소그룹¹⁶²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 성장에 있어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교회에서 소그룹 목회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에서 소그룹목회의 요구는 사회적, 교회성장적, 목회적인 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소그룹 목회의 중요한 자원들을 개발하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요구하듯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그룹과 모임, 세포조직'이 연합된 모습으로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감당 할 때 교회성장이 온다는 것을 설명한다.¹⁶³ 그는 많은 사람이 축제로서의 예배와 함께 교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의 기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는 모임과

¹⁶²Carl F. George, *성장하는미래교회메타교회*, 김원주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63.

¹⁶³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147.

세포조직이다. '모임'이라는 용어 중요한 특징은 이 '모임'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친교가 시작되고 또 지속되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이 모임에 관해서, 주일학교 분반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하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모임, 즉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웃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또 기도회의 모임이나 찬양대, 전도대, 또는 사회 사업에 관한 후원회, 취미모임등이 있다고 하였다.¹⁶⁴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친교 중심적이라 온전한 필요를 채워주고 소그룹의 중요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대그룹과 모임 다음으로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세포조직'으로 더욱 밀접한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조직체로 설명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중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와그너뿐만 아니라, 칼 조지도 '셀 그룹 공동예배'라는 두가지 요소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¹⁶⁵ 두 날개를 가진 교회의 중요성이 셀 교회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자연적 교회 성장'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¹⁶⁴Ibid, 155-156.

¹⁶⁵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90-93.

Schwarz)는 세계의 1,000 개가 넘는 교회들을 조사하여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을 8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교회 성장적 특성 8 가지 중에 여섯 번째의 특성으로 '전인적 소그룹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 개개인이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삶 속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삶 속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또한 영적 교제도 깊이 나눌수 있는 소그룹목회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 목회는 멋있기는 하지만 없어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진정한 삶의정수는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¹⁶⁶ 라는 말은 교회에서 소그룹이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클라이드 레이(Clyde Reid)는 소그룹목회가 교회에서 잘 활용됨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케 한다고 말하면서 "소그룹목회가 여러 종류의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성경 연구와 기도, 토론에 매우 유익하며, 다양한 활동을 주도할 수 있고 소그룹 목회는 설교 전달에 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성장과 전도와 선교를 활성화시키고, 치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¹⁶⁷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그룹목회가 교회 성장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¹⁶⁶Christian A. Schwarz, *자연적교회성장치결음*, 윤수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29-31

¹⁶⁷Clyde Reid, *소그룹이살면교회가산다*, 17-31.

중요성을 정리하면 먼저 소그룹목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과 아담, 하와로 구성된 에덴동산 공동체, 예수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 팀 사역으로 전도한 사도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그룹의 예를 통하여 성경적 개념임을 증명해 준다.

다음으로 소그룹목회는 영적 생활을 가능케 한다. 소그룹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서로 점검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통찰력과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건강한 소그룹 활동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주며, 교제를 이루는 최상의 도구이기도 하다.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공동체"로서 친교와 격려에 대한 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필요를 채워준다. 훌륭한 소그룹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서로 나누고 이해하며 기도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

또한 소그룹목회는 교회의 사역을 극대화한다. 소그룹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엡 4:

12)가장 효과적이다. 소그룹 모임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훈련하여 구비시키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상의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소그룹목회는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소그룹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공동체 안으로 초청받고 복음을 접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그룹과 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위로를 받으며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유익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또 다른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그룹 관계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 교회 안의 인간관계도 외로워지게 된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그룹과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며 소속감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비록 많은 수의 성도들과 친분을 쌓지 못하더라도 소그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소그룹은 개인의 신앙의 온전함과 동시에 교회를 세워 가는데 필요한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¹⁶⁸ 소그룹 목회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고, 소그룹 목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를 세워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소그룹목회는 교회의 대형화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깨어진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중요한 장이 되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¹⁶⁸교회성장연구소,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10-11.

3.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목회의 형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교회가 활력을 되찾으며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에 더 깊이 참여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현대 교회는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 교회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바른 교회 성장이 아니다."¹⁶⁹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소그룹 목회의 모델로 연구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소그룹목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대규모 회중 모임과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소그룹을 갖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그룹으로 모일 때 예배를 통한 유익과 소그룹으로 모일 때 새신자의 동화, 교제, 돌봄, 등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 사도행전 2 장 42-47 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소그룹 공동체는 "7 가지의 특징"이 통합적으로 나타나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였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회복을 필요로 하는 교회 모델이 된다.

¹⁶⁹ 교회성장연구소,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10-11.

(1) 초대교회 소그룹 목회의 사역

초대교회의 소그룹목회 사역은 현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대교회 소그룹 목회 사역은 양육, 교제,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다."¹⁷⁰ 이것은 현대 교회의 분화된 소그룹 모형과 다른 모습이다. 현대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 소그룹, 전도 소그룹, 교제 소그룹, 사역 소그룹 등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져 성도들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소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소그룹 목회 사역은 통합되어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속에 작은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소그룹목회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사역을 하였으며, 코이노니아 사역을 감당했다. 초대교회 소그룹은 진정한 교제와 사랑으로 그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였다. 초대교회는 친교 위주의 교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끊임 없이 전도하고 구제하였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 교회는 소그룹에서 교제와 나눔의 결과가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수평적인 성도의교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¹⁷⁰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49-51.

(2) 소그룹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원리

초대교회는 전통과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믿는 무리가 더하여져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소그룹이라는 그릇에 담겨 어떠한 핍박이나 조롱도 견뎌 냈으며,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의 제자들을 재생산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소그룹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능력

초대교회들은 성령에 의해 탄생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사도들이 일반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전제로 한다(행 1: 8; 행 2: 4; 행 4: 8, 31).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는 모든 활동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행되었다.”¹⁷¹

또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나타난 능력 체험은 초기 교회들의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초기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행 2: 22, 43, 5: 12, 6: 8, 8: 6, 13; 14:3, 15:12). 방언, 병자치유, 거짓말을 한 자들의 죽음, 죽은

¹⁷¹ 최동규, *교회성장의성서적원리와전략*,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41.

자가 살아나는 역사 등 다양한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임재와 주도적인 역사는 “교회가 인간적인 뜻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¹⁷²가 된다. 소그룹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달려 있으면 생명력이 없게 된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운행이 있는 소그룹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말씀과 기도의 영성

기도 사역은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었다. 기도 사역은 이미 성령에 의해 교회가 처음 탄생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이루어졌다(행 1: 14).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운 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선언한다. 그 이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사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행 3:1).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와 야고보의 순교 이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신자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경험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행 4: 23-24, 12:5). 기도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잘되어 하나님의 사역에도 열매를 맺을수 있다.

또한 말씀 사역은 기도 사역과 함께 교회 성장을 이루는 두 축이다. 초대

¹⁷²Ibid, 41.

교회에는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행 2: 41).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고 믿게 하는 선포의 내용도 포함되었다.¹⁷³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성전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계속 되었다(행 5: 42).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더불어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행 13:1).¹⁷⁴ 또한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함으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말씀을 강론하였으며(행 20: 7-12)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행 20: 20). 소그룹에서 말씀공부는 구성원들의 변화와 영적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3 열정적 전도

초기 교회에서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다. 초대교회 소그룹은 내적 결속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구제하였다. 복음의 내용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다. 신자들은 날마다 집에 있는지 성전에 있는지 매우 열정적으로 용감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¹⁷³조영호, *오순절회심사건연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출판부, 1987, 82.

¹⁷⁴Ibid, 43.

종교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에 관해 증언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행 7: 2-60). 소그룹의 목적은 재생산에 있다. 생명있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소그룹의 생명력은 배가하고 번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 모임은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일치를 지키는 원리이고, 동력이다.¹⁷⁵

4 사랑과 섬김의 구제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제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 32)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서 꺾절한 사람이 없었다. 진정한 소그룹에는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코이노니아가 나타난다. 개인주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소그룹이 교회안에 교회이며 교회의 가장 중심적 단위라면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이 소속감이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터득해야 한다.¹⁷⁶

¹⁷⁵조경철, 코이노니아의 성서적 이해, 37.

¹⁷⁶R. W. Neighbour. 정진우역. 셀교회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55.

5 사역자를 세움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경우 평신도 사역자의 필요성은 구체 문제를 계기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행 6: 3-4).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 사역했음을 볼 수 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했는데 이는 비교독교 인들이 감독 또는 장로와 같은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⁷⁷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다양한 종류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행 13: 1). 이와 같이 양성된 평신도 사역자들은 사도들과 더불어 초기 교회를 성장시키는 믿거름이 되었다.¹⁷⁸ 소그룹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은사에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맡기고 책임을 갖게 할 때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게 된다. 소그룹의 성패는 리더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이 리더가 훈련되어 세워질 때 건강한 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

¹⁷⁷John Foster, *초대교회의역사*, 39.

¹⁷⁸Ibid., 42.

(3) 소그룹 목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주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모델을 따랐다.¹⁷⁹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족 공동체였다. 이들은 최소 2 세기 동안 계속 모였고 많은 가정집들이 모임장소로 개조 되었다. 초대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게 여겼다. 브라닉(V. Branick)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다 가정교회였다.”¹⁸⁰라고 주장한다.

브리스길라와아굴라의 가정교회는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의 집은 가정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행 18: 3). 디도유스도의 가정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안식일 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쫓겨났을 때 회당 옆에 살던 유스도는 자기집을 바울의 전도를 위해 제공하였다.¹⁸¹ 그리스보의 가정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몇 안되는 사람 중에 하나로 “회당장”이라는 직책으로 보아 일정한 직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행 18: 8, 고전 1: 14). 그리스보를

¹⁷⁹ 채이석, *소그룹의역사*, 45.

¹⁸⁰ V. Branick, *초대교회는가정교회였다*, 홍인규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5.

¹⁸¹ 문효식, *예수그리스도의사역에나타난소그룹공동체연구*, *국제신학 통권제 8 호*,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98.

포함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네 가정들 즉 가이사라의고넬료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행 10: 2),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집의 온 식구들(행 16: 14-15), 빌립보에서 바울의 간수였던 자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행 16: 33), 고린도의 그리스보와 그의 모든 식구들(행 18: 8)은 개종 후 가정교회를 이끈 사람들이다. 이들이 각각 백부장, 사취품을 취급하는 사장, 시 공무원, 그리고 회당장과 같은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역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¹⁸²

스데바나(Stephanas)의 가정교회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으로 그의 가정은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로 언급되어 있다(고전 16: 15). 여기서 가정은 집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자녀들은 물론 모든 노예들도 포함된다. “바울은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타쏘(Tasso)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그 어떤 헌신된 활동, 영속적인 활동을 말하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브드나도와아가이고라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가 부자였으며 그의 활동은 가정 교회가 중심이었음을 암시한다.”¹⁸³

가이오(Gaius)의 가정교회 역시 바울이 세 번째로 세례를 준 사람으로 바울은 그에 대하여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롬 16: 23). 그는 큰

¹⁸²V. Branick, *초대교회는가정교회였다*, 95.

¹⁸³김지철,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640.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초기 교부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적어도 30 명 이상으로 추정됨)가 가이오의 집에서 모였던 것을 보았다.

에라스도의 가정교회는 고린도의 시 재무관¹⁸⁴이었던 그가 바울에 의해 개종한 후 가정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울이 사도행전 19 장 22 절과 디모데후서 4 장 20 절에서 독립적인 여행을 수행한 그를 언급한 것은 그가 그의 동역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⁸⁵ 뵈뵈의 가정교회 역시 바울에 의해 설립된 가정교회로 그녀는 자기 집에서 겐그리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있는 고린도의 보다 큰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던 가정교회였다.¹⁸⁶

가정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과연 교회 안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이 비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정교회에서 행한 일 가운데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예루살렘교회가 3,000 명-5,000 명씩 회개함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예배장소가 협소하게 되었다.후에는 자연스럽게 가정교회가 예배와 교회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다음은 세례가 중요하다. 초대교회사 최초의 문서인 '디다케'에도 세례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에서는 성만찬 의식도 거행하였다.성만찬은 성경봉독, 말씀선포, 기도 이후에 거행하는 예식으로 예배에 포함되었다.¹⁸⁷

¹⁸⁴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02.

¹⁸⁵ Ibid, 98.

¹⁸⁶V. Branick, *초대교회는가정교회였다*, 100.

¹⁸⁷채이석, *소그룹의역사*, 47-50.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공동체적 삶의 모델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로서 공동체에서 전도와 창작과 양육과 번식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소그룹을 탄생시켰고 소그룹들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공동체성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다.

제 6 장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 방안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구조적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그룹목회 사역이다. “소그룹 목회는 가장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¹⁸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평신도 소그룹 리더들이 모든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는 내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21 세기의 교회는 소그룹목회 사역을 통해 교회 전체가 역동성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소그룹 목회를 통해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소그룹목회 활성화를 위한 사역준비

21 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교회적인 요청이 소그룹목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¹⁸⁸Steven R. Paul,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Eight Ways Ordinary People Can Do the Church*,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Downers Grove, 1992, 135.

있다.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소그룹 목회를 바로 조직해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그룹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소그룹목회를 위한 실제적인 사역준비와 운영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목회의 패러다임 (Paradigm) 전환

빌 벡햄(Bill Beckham)은 "우리가 진보를 이루려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관점을 요구한다."¹⁸⁹라고 말한다. 교회성장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교인들의 의식 구조가 변하면서 교회성장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촉구"¹⁹⁰되고 있다.

스티븐 코비(Steven Covey)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에서 "어떤 사물이나 실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 혹은 지도이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물을 보는 눈, 즉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¹⁹¹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Paradig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8 년에 한미준(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 갬럽에 의뢰하여

¹⁸⁹Bill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터치코리아지역팀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1.

¹⁹⁰ 채종성, 소그룹목회의 시작과진행에관한고찰,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편, 서울: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편, 2013, 341.

¹⁹¹김성곤, 두날게로날아오르는건강한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21.

‘한국 개신교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를 믿고자 희망하는 응답자의 32.6%가 교인 100 명 정도의 소형 교회를 희망하고 있었다.¹⁹²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역동적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소그룹목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목회 체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개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그룹목회 체제는 교회 조직을 소그룹목회 중심으로 만들며 다양한 소그룹을 많이 가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식 전환이 될 때 비로서 소그룹 목회가 교회 안에서 정착될 것이다.

(1) 목회자의 패러다임의 전환

담임목사의 교회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소그룹 목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소그룹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소그룹 목회로 전환할 수 있다. 담임 목회자의 확실한 열망은 사역 감각을 새롭게 하여 성도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소그룹 사역은 활성화 될 것이다. 특히 “교회에 소그룹 목회 사역을 도입한다는 것은 평신도에게 많은 힘과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¹⁹²한미준, *한국개신교인의교회활동과신앙의식*, 서울: 두란노, 1999, 253.

목회자는 평신도 목회의 거부감을 버려야 한다. 평신도에게 목회의 본질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변화시키는 일¹⁹³을 맡기는 것이다.

베드로는 평신도를 '왕 같은 제사장'(벧전 5: 1-4)이라는 사역적 정체성을 세워 주었다. 교회에서 평신도의 엄청난 자원이 '봉사'라는 전통적 개념에 묶여 목회적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평신도의 목회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그룹 목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쿤(T.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자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 곧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자연 그 자체가 본래 그대로 자연이지만, 과학자의 눈에 자연은 새로운 자연으로 나타나 보인다"¹⁹⁴고 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그룹 목회 특히 "평신도 사역"에 귀 기울인다면 초대교회에서 거둔 성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2) 평신도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신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¹⁹³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229.

¹⁹⁴Thomas Samuel Kuhn, *Stru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3.

사역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평신도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레이'(Lay)는 오랜 세월동안 종교적인 용어로 쓰였는데, 다른 종교적이고 성경적인 용어들과 함께(예컨대 소명, 봉사 같은말) 세속화되어 지식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으로 '무식하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주로 '라오스'(Laos)로서 영어로 'Lay, 혹은 laity 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교회(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사용하였다(행 15: 14; 롬 9: 25; 고후 6: 16). "라오스(laos)는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들과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남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 곧 '참으로 비범한 백성' 이란 뜻이다."¹⁹⁵

그러므로 평신도의본래의 의미는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라는 말에는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을 갈라놓는 의미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¹⁹⁶

베드로전서 2: 9-10 의 말씀은 평신도의 위상과 그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은 평신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평신도를 택하신 족속,

¹⁹⁵ Paul Stevens, *21 세기를위한평신도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렬역, 서울: IVP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40.

¹⁹⁶ 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39-40.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기본 구조는 계급의 구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그들이 고유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결코 교역자와 평신도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왕 같은 제사장들인 평신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주고, 사역을 과감히 위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윌리몬(William H. Willimon)은 목사는 만인 사제적 원리에 따라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자들을 곁에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며,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사제(Priest)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⁷

미래 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교인 상호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체제가 될 것이며, 평신도의 사역과 기술이 증대되고 사역의 주인이 목회자에서 평신도로 옮겨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평신도의 헌신과 참여가 있는 구조가 미래 교회의 모습이다. 소그룹 목회로 전환함에 있어 평신도들의 전통적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회 내의 전통에 익숙해 있는 평신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¹⁹⁷William H. Willimon, *예배와 설교 클리닉, A Guide to Preaching and Leading Worship*, 김윤규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170.

그러므로 전통교회 평신도들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목회자가 소그룹에서 평신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그룹 구성원의 은사 및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소외감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을 위임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2. 소그룹 목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1) 목회자의 비전 제시와 리더십

소그룹 목회는 평신도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목회자는 방임한다는 뜻이 아니다. 목회자의 적극적인 비전 제시와 지원,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비전과 목적 중심으로 소그룹목회가 운영 되도록 한다. 비전 중심으로 소그룹 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그룹목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소그룹의 네 가지 본질적 활동 즉 예배, 양육, 교제, 전도가 적절히 안배된 비전이어야 한다.

조지 바너(George Barna)는 "소그룹의 공유된 비전은 조직을 더 탁월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¹⁹⁸고 말한다. 비전은 사역에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역의 결과를 측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여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꿈 꾸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그 꿈을 현실화 시켰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계승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골 1: 6)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신자들의 양육을 통해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인식했다.

예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려면 자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든 삶이 “영적 지도를 받는 시대”¹⁹⁹를 꿈꾸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언젠가는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을 꿈꾸라고 신자들을 독려했다.

문병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소그룹이 비전을 중심으로 운영될 때 정체와

¹⁹⁸George Barna,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Turning Vision Into Action*, 조범서역, 서울: 서로사랑, 1997, 57.

¹⁹⁹Jeff Caliguire, *사도바울의 리더십비밀, Leadership Secrets of Paul*, 조계광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131.

안주를 떨쳐 버리고 성장과 성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조지 바나(George Barna)의 말을 인용, 크리스천 리더에게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 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마음속의 생생한 그림이다"²⁰⁰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소그룹 공동체 목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환영의 리더십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라(Welcoming Leadership). 둘째,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여 부흥하는 비전을 바라보라(Multiplying Leadership). 셋째, 위임의 지도력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라(Delegated Leadership). 넷째, 감성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장하라(Emotional Leadership).²⁰¹ 소그룹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먼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소그룹 목회가 하나님 뜻이라는 비전을 받아야 한다.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²⁰⁰ 문병하, *크리스천 리더십*, 162-3.

²⁰¹ Ibid, 163-4.

시작되고 예수에 의해 만들어지며 성령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²⁰² 그러므로 새로운 사역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한다.

(2) 평신도와의 비전 공유

담임 목회자가 소그룹 목회에 대한 비전이 확실히 한 후에는 소그룹 목회의 비전을 핵심그룹인 부교역자 및 제직들 그리고 성도 전체와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된 비전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소그룹 목회에 대한 비전은 사역에 동기를 부여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사역의 결과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소그룹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부터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나 각종 위원회 모임에서 소그룹목회 사역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소그룹목회 사역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소그룹 목회세미나에 참여하게 한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 소식지나 설교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성도들이 소그룹목회 사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비전을 전달해야 한다. 존 맬리슨(John Mallison)은 다른

²⁰²George Barna,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58.

사람들에게 소그룹목회 비전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소그룹 목회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게 함으로써 소그룹 회의잠재력을 보는 데 도움을 주라. 지역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 즉 지역교회 신문이나간증들 그리고 좋은 영화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소그룹 목회의 가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활용하라. 사람들이 소그룹에 속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유익들이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1 일 소그룹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련회나 주말 캠프등 특별 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라.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을 소그룹에 대한 비전으로 물들게해야 한다.²⁰³

3. 교회 행정의 구조적인 변화

소그룹 목회가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회행정의 구조적인 변화이다.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전통 교회의 구조가 관리적 측면에서 존재했다면 소그룹목회 중심의 교회 행정은 각각의 그룹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워드쉬나이더(Howerd A. Synder)의 설명은 췌진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원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형식을 바꾸었다고 췌신을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나 삶으로부터 췌신을 추구함으로써 형식을 바꿀 수는 있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뤄지고 개혁의 의지가 없는 전통에 매여있는 집단에서는 췌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혹시 일어나더라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전통적인 형식들이 주기적으로 재평가될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구조적 생명력이 재발견될 때에는 췌신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²⁰⁴

²⁰³John Malloson, *생동감있는소그룹매뉴얼*, 신재구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166.

²⁰⁴Howerd A. Snyder, *Signs of the Spirit*, Eugene Oregon: Wiph and Stocks Publishere, 1997, 251.

하워드쉬나이더(Howard A. Snyder)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구조적인 생명력이란 전혀 제도화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정교회의 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제도화되지 않은 은사에 따른 직분과 기능, 전통적 관례와 무관한 공동체 생활, 평신도들에 의한 자발적 섬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증거 등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의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구조모델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 목회로 전환하려는 전통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기존의 당회나 각종 위원회의 반발과 저항이다. 김동호 목사는 교회구조 갱신의 필요성을 수행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낙후된 의식과 제도이다. 아이들이 자라면 신발과 옷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제도나 조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회의 책임과 권한이 특정집단과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²⁰⁵

이상과 같이 소그룹 목회로서 전환은 구조적 변화를 전제해야 하지만 교회의 기득권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소그룹 목회 구조의 지원 체제를 준비 단계부터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소그룹목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때 역동적인 소그룹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²⁰⁵ 김동호, *생사를건교회개혁*, 서울: 규장, 2000, 31-38.

4.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 준비

현대 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평신도라는 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라오스 (laos)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은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신약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교회에 적용되었다.²⁰⁶ 소그룹 목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목회자로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훈련된 리더들이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목회로 전환하여 운영할지라도 교역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잘 훈련되지 못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소그룹목회 구조로 전환하였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리더를 세움으로 장기적으로 소그룹의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소그룹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소그룹 목회의 생명은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소그룹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그룹 목회 인도자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그룹 목회 성패는 인도자의 자질에 달려 있기

²⁰⁶ H. Kraemer, 유동식역, 평신도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9), 172.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목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가치를 알고 교역자와 같이 목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B. 소그룹 목회 활성화 운영방안

1.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 운영방안

소그룹 목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신학적, 제도적, 기술적인 조건이 형성되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소그룹 목회의 신학적 기초는 '공동체'이다.²⁰⁷ 그러므로 소그룹목회는 새로운 목회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목회자의 목회신학 및 목회철학을 다룬다. 기술한대로 소그룹 목회가 교회 제도의 한계와 목회자의 목회 신학이나 목회철학과 상반되어 유명무실 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대신 할만한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소그룹목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도화된 교회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교회는 제도나 조직보다 앞서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소그룹을 존재하게 하며

²⁰⁷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91.

소그룹이 진정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한다.

사회속에 존재하는 집단으로서 교회는 제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교회 본래의 특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호머 캔트(Homer A. Kent)에 의하면 “교회는 본래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⁰⁸고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몸의 각 지체와 같이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게 되며 자신의 역할을 한다. 몸의 유기적인 특징은 바로 각각의 지체의 개별성과 사회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교회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교인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유기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다음은 사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ynder)는 교회의 변혁을 말하면서 제도화된 교회의 단점을 “활동성이 없고(Immobility) 융통성이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Inflexibility) 친교(Fellowship)가 부족하고 또 자만심(Pride)과 계급의식(Class Division)에 가득 차 있다”²⁰⁹고 지적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ynder)의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비평이 모두 옳은

²⁰⁸Homer A. Kent, *목회학*, 이주영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124.

²⁰⁹Howard A. Syn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81.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 제도화된 교회에서 소그룹모회를 위해서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소그룹모회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그룹모회가 양성화 될 수 있는 교회 토양에 대하여 스나이더는 우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²¹⁰고 주장한다. 그룹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나 기능, 소그룹 모임의장소, 시간, 횟수 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그룹 모회는 모임을 교회 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소그룹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모든 류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그룹은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희망을 가질수 있는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은 성직자나 권력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²¹⁰⁾bid, 156-7.

정체되어 있지 않고 소그룹 구성원들에 의해 계속 성장하고 번식해 나가자면 평신도의 리더십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²¹¹ 제도화된 교회를 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 곧 소그룹목회가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야 한다.

(2) 직분과 제도의 기능적 이해

소그룹 목회는 모든 교인들이 목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이다. 지금까지 전교인이 참여하는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목회자인 목사였다. 전통적으로 목회학(Polmenics)에서는 목회는 목사가 하는 일²¹² 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평신도가 하는 일이 아무리 목회적으로 중요하다 할지라도 단지 목회를 돕는 사역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이 목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헌신을 강조하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목회를 목사 혼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반 평신도들은 과거보다 성경지식이 넓어지게 되었고,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안에서 전문가들이 되었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교인은 전문적인 일에, 그것이 없는 교인은 비전문적인 일에 참여하여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 때 목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곧 소그룹목회가 가능한 교회가 세워진다. 목사는

²¹¹ibid, 156.

²¹²관악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214.

자신의 전문성에 속한 일이 아닌 것은 그 일에 전문성(은사)을 가지고 있는 교인에게 맡김으로써 목회사역에서 직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목사직과 함께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은 직책이지 신분이 아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 교회 내에서 계층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직분은 섬기는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미 18 세기에 웨슬리는 “교회의 직분을 기능적으로 보아야 한다”²¹³고 말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제도나 직분을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분화 내지 계층화”²¹⁴로 변질시켜 직분이 교회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교회의 모든 제도와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목회를 위한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제도를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 소그룹 조직이 더 이상 작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지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소그룹의 지도자 직분이 다른 직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중요한 은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목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²¹³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42.

²¹⁴ 김영한, *성경둔화에 대한 요인 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8, 18.

원동력을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성령의 은사²¹⁵로 본다. 리더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소그룹목회는 “모든 직분을 기능으로 이해하는 교회에서 성장한다”²¹⁶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두 날개로 나는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초대교회는 갑작스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후에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그룹으로 보안되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다. 소그룹과 대예배는 하나님 체험을 균형있게 해준다. 예배에서 신적인 초월성을 경험하고 소그룹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다. 소그룹은 대그룹과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즉 한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으로,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교회가 두 날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날개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더그 왈론(Doug Whallon)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아래와 같은 교회의 특징들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²¹⁵이광수, *조그룹이살아야교회가건장해진다*, 93.

²¹⁶Doug Whallon, *리더십의공유*, Ron Nicholas ed,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64.

주일에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회를 만든다. 교회 건물이나 땅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소그룹 날개는 교회의 기본단위이며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 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주일 예배는 주중에 교인들이 살아온 삶의 생명역으로 넘치게 되어야 한다. 소그룹 날개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책임을 지며 섬기는 지체들이 되도록 한다. 소그룹 날개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발견해가면서 양육과 치유를 받도록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임사역자들은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통찰력과 비전을 주며 기도에 전념한다. 소그룹 날개와 대그룹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²¹⁷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소그룹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날개와 대그룹의 날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말씀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구조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한 편의 설교로 목회의 승부를 거는 것처럼 보여지는 목회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¹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성한 말씀잔치가 교회마다 일주일에 수차례나 벌어지고 있지만 말씀의 맛과 멋이 청중들이 존재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미약하다는 것이다.²¹⁹

지금으로부터 약 60 여 년 전 영국교회나, 50 여 년 전 미국교회가 설교를 듣기

²¹⁷Doug Whallon,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38.

²¹⁸오현철, *교회성장과설교*,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59.

²¹⁹이승진, *현대설교의개요*,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설교학, 서울: CLC, 2003, 275.

위해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자랑하였지만 불과 반세기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목회자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교인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다. 오늘날 영국교회는 교회 건물조차 이교도들에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무슬림 사원이 되어버린 곳도 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영국교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설교를 듣기만 하고 '성육신화'되지 못하는 교인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의 능력을 모른다. 왜냐하면, 말씀은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있고난후에야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그룹 목회의 전문가인 롭 말론(Rob Malone)은 교인들이 말씀을 생활화 하는데 가장 적절한 목회방식이 바로 소그룹목회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속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작은 규모의 소그룹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처럼 모여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주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다.²²⁰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공부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²²⁰Rob Malone, *우리는서로에게필요한존재이다*, Ron Nicholas, ed,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16.

않거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목회 구조상의 문제이다. 목회구조가 모든 교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목회자는 목회 구조를 소그룹목회로 전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2. 건강한 소그룹 목회를 위한 4 가지 전략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전략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전략들이 고안되어 적용되고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삼각기둥 전략(Triangle), 빈자리 전략(Amplify), 생명주기 전략(Life Cycle), 코이노니아 전략(Koinonia)의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영문 이니셜을 모아서 "TALK 전략"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그룹 지도자들이 'TALK'전략을 기억하면서 소그룹을 운영해 나간다면 역동적인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²²¹ 이제 각 전략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삼각기둥 전략(Triangle)은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며, 성경연구와 그룹세우기 그리고 모임의 확장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요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성경연구'는 건강한 소그룹의 생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요소이다. 이것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 15)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²²¹ 체이석, 이상화, *건강한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47.

‘그룹세우기’ 또는 ‘보살핌’, ‘교제’는 하나의 그룹을 세워가는 결속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요소이다. 이것은 또한 골로새서 3 장 12 절에서 17 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확장 혹은 빈자리’는 소그룹 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항상 그 모임이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갈 4: 3)는 말씀에 기초한다. 소그룹목회 사역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러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 연구는 건강한 소그룹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로베르타헤스테네스는 “소그룹에 다양성에 대한 기본 유형으로 성경연구 모임, 나눔 모임, 사역의 모임, 훈련 모임의 4 가지로 분류”²²²하였다. 이 가운데 성경공부 중심의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의 공동체적인 삶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연구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한가.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룹 세우기와 보살핌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서로를

²²²Roberta Hestenes, *Using the Bible in Group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25.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 과정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제만을 강조한다면 그 모임은 결국에는 결속력을 가질 수 없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단지 내부 구성원들끼리만의 상호, 의존 모임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사역을 전개하는 ‘모임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건강한 소그룹 목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소그룹을 오로지 확장 일변도로만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다.”²²³ 그러므로 건강한 소그룹 목회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필수적인 삼대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한 “삼각기둥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소그룹 목회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삼대 요소 가운데 확장(선교와 전도)의 요소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빈자리 전(Amplify)”은 모임 장소에 빈자리 하나를 놓아둠으로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빈자리는 대부분 견고하게 결속된 그룹일수록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경직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명적 모판으로써 소그룹 사역을 진행한다.”²²⁴는 점을 깊이 인식할

²²³제이 석, 이상화, 48-51.

²²⁴Ibid, 52-4.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에서 빈자리를 기억하면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빈자리에 대한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움직이게 할 때 건강한 소그룹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생명주기 전략”(life Cycle)은 동적인 운영방식으로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그룹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예측 가능한 생명주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²²⁵

스티브 바커는 “소그룹은 정체된 유기체가 아니며 하나의 생명체로서 탄생으로부터 유아기, 소년기, 장년기와 때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²²⁶고 했다. 그러므로 주기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소그룹이 현재의 주기의 단계를 이해하고 그 그룹의 형편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의 기본주기는 탐색기, 전환기, 활동기, 종료기 등 4 단계로 보았다. 한 그룹의 단기적인 활동 단계에 있어서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한 가지에 나머지 두 가지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소그룹이 처음 출범한 탄생 시기에는 그룹 세우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²²⁵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교회를세우라*, 290.

²²⁶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신재구역, 서울: IVP, 1986, 75.

그것이 성경 연구와 확장의 요소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²²⁷ 소그룹이 구성되고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하게 된 시기에는 성경 연구를 깊이 있게 하거나, 전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결단을 촉구하여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참석자들 모두가 그 모임 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소그룹에 참석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교제하는 것에 시간과 모든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탄생의 시기가 지나가면 구성원들이 소그룹 안에서 보다 성숙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와 확장(선교와 전도)에 대한 깊이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와 시간으로 이끌어 가면 된다. 소그룹의 생명주기에 맞추어 마지막까지 소그룹의 중요한 삼대 요소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간을 배정하고 교과과정이나 교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소그룹은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결국 정확하게 이해하면 생명주기 전략은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의 목적이 소그룹의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세 가지 요소들의 우선순위는 그 그룹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에 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²²⁸

²²⁷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138-9

²²⁸채이석, 이상화, *건강한소그룹사역어떻게할것인가?*, 54-6.

‘코이노니아 전략’(Koinonia)은 탄생시기에 그 소그룹을 견고하게 조직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전략이다. 클라우드와 타운센드(Henry Cloud and John Townsend)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마음과 마음의 인격적 차원에서 서로 만나 교제한다. 교제는 모든 그룹 내 선한 작업의 기초이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이 통하거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과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은 필요한 정보나 관계 유지보다는 교제의 힘이 훨씬 크다”²²⁹라고 주장한다.

이 전략의 과정을 잘 나타내 주는 구도는 바로 야구장의 다이아몬드이다. 야구장 그림에 나타나는 각 베이스들은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단계적으로 결속되고 견고해지며 완성되기 위한 각 과정을 나타낸다. 우선 1 루 베이스는 자기소개 과정이다. 소그룹에서 소그룹 자체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각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는 것이다.²³⁰

이런 면에서 1 루 베이스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써 ‘자기소개’라고 말한다. 즉 부담없이 ‘서로를

²²⁹Henry Cloud and John Townsend, *Making Small Groups Work; What Every Small Group Leader Needs*, Michigan: Grand Rapids, Zondervan, 2003, 71.

²³⁰Gene A. Getz, *현대교회성장학*, 임성택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293.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다. 2 루 베이스는 긍정의 과정으로서, 1 루에서 자신의 삶에 관해 소개하고 나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곳이다.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에 대해 긍정의 반응을 보일 때 그들 사이에는 '관계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성은 단순히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기술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2 루 베이스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면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의사를 표현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그룹이 결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3 루 베이스는 '목표 설정' 과정이다. 나눔과 긍정은 구성원들 서로간의 좋은 관계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위험 앞에서도 공동체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3 루 베이스 에서는 보다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²³¹

마침내 1 루, 2 루, 3 루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마쳤을 때 그 소그룹은 흠 베이스인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의 상태인 코이노니아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자기소개와 과정과 완전한 수용과 긍정을 통해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관계성을

²³¹ 채이석, 이상화, 56-60.

가진 지체들이 새로운 목표 설정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소그룹 안에서 흘러 넘쳐 건강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3. 소그룹 모임 진행 방법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만약 리더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그룹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로 인도할 수는 없다.²³²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적어도 30 분 전에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소그룹 모임 진행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를받을 때 더 나은 계획과 돌발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훌륭한 소그룹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소그룹 모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열기, 경배하기, 말씀 나누기, 사역하기 4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²³³ 1 단계인 마음열기(15 분)는 시작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다. 대부분의 소그룹

²³² Jeol Camiskey, 79.

²³³ 채이석, 이상화, 79.

구성원들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마땅히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임을 유쾌하게 시작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에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 나 다과를 준비하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마음열기는 아이스브레이크(Ice Breaker)로 시작하는데, 아이스브레이크는 소그룹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트려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스브레이크는 마음을 열고 깊은 참여와 나눔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유치하거나 두렵지 않은 질문으로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마음 열기 시간은 단순히 즐겁게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 할 수 있으면 말씀 나누기와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 열기 순서를 준비한다.”²³⁴

2 단계는 경배하기(20 분)이다. “경배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임을 그분의 통치 아래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소그룹 모임은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배 시간은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사교적인 모임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한다.”²³⁵ 특별히 찬양 인도자는 곡을 선택할

²³⁴류영모, *아버지의마음과비전*은 G12 셀리더십, 서울: 시로사랑, 2004, 54.

²³⁵Joel Comiskey, 34.

때에는 그 날의 주제에 맞는 곡들을 선택하고, 마지막 찬양을 할 때는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가
나타나면 준비된 형식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²³⁶

3 단계는 말씀 나누기(40 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으로, 지난번
모임에서 나눈 말씀을 한 주 동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였는지 간략하게
묻고 확인한다. 그리고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이나 주제에 관하여 15-30 분 정도 같이
공부한다²³⁷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나누며 개인적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을 나눌 때 인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 단계는 사역하기(15 분)이다. 소그룹의 마지막 부분인 사역시간(전도 및
봉사)은 그 모임의 구성원 보다는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한주 동안 각자가 전도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소그룹 모임의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는 시간이며,

²³⁶류영모, *두날개로비상하는교회*, 서울: 도서출판서로사랑, 2002, 116.

²³⁷조용기,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34.

소그룹 모임이 외부의 민지 않는 사람들과 교통하므로 고립될 위험에서 건져준다. 또한 사회 봉사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봉사 활동의 모습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날마다 다르게 진행 될 수 있다.

소그룹 모임 시간은 전체적으로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모임을 진행할 때, 시간 배정이 모임 초기에는 마음 열기와 찬양을 통한 경배에 할애하며, 성숙단계에서는 말씀 나누기와 사역하기를, 번식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복음전파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도록 한다.

4. 소그룹 목회 진행의 문제 및 해킹

소그룹 안에서 어떤 문제들은 그룹 모임을 방해하거나 또는 소그룹의 존립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리더는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줌으로 소그룹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그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²³⁸

첫째, 그룹 내의 지배자에 대한 문제이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 인도자가 아니면서도 모임을 주관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외향적이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 너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소그룹의 불균형을

²³⁸안재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276.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리더는 다른 지체의 좋은 생각이나 의견도 들어볼 기회를
가집시다. 라고 말하면서 화제의 초점을 돌려야 한다.

만약 그 지배자의 주도권을 중단하였을 때 시험에 들고 분노하게 될가봐
주도권을 방치하면 구성원들의 분노를 축적시키게 되어 모임 자체를 망치게 될 수 있다.
이런 지배자를 다룰 때 공개적으로 다루기보다 우회적으로 개인적 만남을 통해
해결하거나, 그룹 내에서 그 지배자의 행동이 멤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토의를 통해 협조하도록 하거나, 그 지배자로 하여금 리더를 도와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배자가 토의를 장악하려는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²³⁹
만약 이렇게 해서도 실패할 때에는 얼마간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에게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해줄 용기가 없다면 그룹 안에서의 의사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피상적인 만남이다. 이것은 교제의 수준이 깊이 없이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게 하고, 머물게 하고,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오는 결과일 경우이다. 그 그룹의 구성원들은 그를 한 인간으로 알기를

²³⁹한국대학생선교회, 소그룹성경공부인도법, 이렇게한다, 서울: 순출판사, 1990, 101

원하지만, 오히려 자신은 그룹을 믿지 않고, 참여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그룹을 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룹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욕구불만이 커지게 된다. 또 그룹 안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다."²⁴⁰ 이런 경우에도 그 모임은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 피상적인 모임에서 머무르게 된다. 그것은 그 방해꾼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는 진실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해꾼을 격리시키는 조치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그룹 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전환기에 많이 발생하나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기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모든 멤버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두 세 명의 멤버가 편견이나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옳은가 정확한 판단도 없이 집단 심리에 빠져 무분별하게 표출할 때 그것은 그룹내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험담이나 증상으로까지 발전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 되고 만다."²⁴¹

감정은 사람으로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하위 그룹은 위험할 수

²⁴⁰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장동수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28.

²⁴¹Ron Trudinger, 126.

있다. 물론 그룹 안에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질 집단이 배타적이 될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판단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끼리 이런 집단이 형성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초기에 파악하고 개별적인 접촉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룹 전체가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소그룹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된다. 더구나 그 그룹의 인도자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손에 장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그룹을 세워 나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화합과 일치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거나, 소그룹이 너무 비대해 지지 않도록 멤버들 각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그룹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위기는 그 그룹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며, 그룹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닐 콜(Neal Cole)은 재생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말마다 먹는 말씀의 분량을 충분히하여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둘째로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셋째로 모임안에 보충용 자료를 추가 하거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넷째로 소그룹 목표 시스템을 교회의 가장 밑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²⁴²

소그룹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늘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소그룹 목회 사역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정기적 소그룹 모임 평가

소그룹 사역을 진행할 때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중요한 실수는 그룹이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내버려 두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그룹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소그룹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결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평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썩 달갑지는 않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상황이나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²⁴²Nea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편집부역, 경기: NCD, 2007, 189-192.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소그룹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정기적인 평가는 필수불가결이다. 특히 소그룹 목회 사역을 시작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자주 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닐 F,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평가란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²⁴³라고 정의한다. 소그룹 목회에서 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판단, 결정이 격식있는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격식있는 평가가 이루어 지려면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소그룹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먼저 평가 내용으로 우리는 목적을 성취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얼마나 함께 잘 사역했는가? 각 개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²⁴⁴ 라는 4 가지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그룹 모임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을 모임에 초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대 대상으로 교회 내부의 소그룹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목회자나, 다른

²⁴³닐 맥브라이드, 김영수역,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164.

²⁴⁴J. Mallison, *생동감있는소그룹매뉴얼*, 85.

소그룹의 리더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조대 인사들이 객관적으로 소그룹을 평가할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리더와 소그룹 구성원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소그룹 사역을 맡게되면 모든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소그룹이 더욱 성숙되고

역동적이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이 처음 세웠던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조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효과적인 평가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소그룹 재생산

소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목적인 재생산이다. 즉 소그룹의 목적이 현상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소그룹으로 인도하여 배가시킨 다음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새로운 소그룹으로 분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소그룹

재생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창 1: 28)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즉,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에 매여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다.”²⁴⁵

따라서 소그룹이야말로 교회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재 생산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 20: 35). “새로운 소그룹을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주는 사역이기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재 생산은 가장 확실한 열매이다(요 15: 8). 주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듯, 하나의 소그룹이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신앙의 열매이다.”²⁴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재 생산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든지 그 개체가 어느정도 자라면 재 생산의 과정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며, 교회를 통하여 주를 닮은 사람들을 생산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재 생산의 원리에 의해 부흥해야 한다.

소그룹 재 생산의 원리는 ‘리더 주도의 원리’이며 어떤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이다. ‘리더가 어떤 마인드와 자세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가 그 조직에

²⁴⁵ Robert E. Coleman, *주님의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111.

²⁴⁶ 조용기, *소그룹리더학교*, 70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셀 목회 전문가 조엘 코미스키(J. Comiskey)가 700 개 이상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정기적으로 90 분 이상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30 분 미만의 리더들보다 두 배나 더 그룹을 번식시킨 것을 나타냈다."²⁴⁷ 이와 같이 소그룹의 재생산은 소그룹 리더의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들이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재생산에 대한 비전을 그룹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여 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그룹 재생산의 원리는 '리더 재생산의 원리'이다. 소그룹 목회가 활성화 된 교회들은 소그룹 성장이 곧 교회성장이라는 점과, 소그룹 성장의 핵심이 리더 재생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은 리더의 역량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숫적인 목표 보다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두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멤버를 잠재된 리더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예비 리더로 임명한다."²⁴⁸ 그리고 예비 리더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 훈련 과정이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다.

²⁴⁷J. Comiskey, *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역, 셀그룹폭발, 서울: NCD 2003, 49.

²⁴⁸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229-230.

또한 소그룹 재생산의 원리로 '분위기 쇄신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즉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이 배가되는 것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그룹이 배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소그룹에서 일정한 인원을 떼어내서 새로운 소그룹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그 소그룹이 분가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소그룹의 번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활성화하여 초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소그룹 배가의 유익을 이해시키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분위기를 갖도록 이끌어주면, 위험요소를 기꺼이 감수하고 헌신하게 된다.

소그룹 재생산의 원리는 '전도 정착의 원리'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역동적인 소그룹 재생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가 된다. 소그룹 내에서 비록 예비리더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부흥이 없이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소그룹에서 재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그룹의 전도의 대상은 소그룹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 즉 오이코스이다. "윌로우크릭 교회에서는 오이코스 전도의 대상을 6F 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Family(가족), Friend(친구), Fellowship (소속기관이나 단체), Fun(취미모임), Factory(직장), 그리고 Fishing 즉 낚시와 같은 교회 내의 각종 행사이다. 오이코스가 또

다른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오이코스 체인이 형성될 때 전도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²⁴⁹

소그룹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동화되어 정착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그룹이 대그룹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안에서 사랑과 관심,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다.

소그룹 재생산의 다섯번째 원리는 ‘모델 결정의 원리’이다. 모임의 참석 인원도 많아지고 예비리더도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 소그룹을 나눌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소그룹을 분가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즉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의 선에 의해서 소그룹을 나누어야 한다. 소그룹 재생산의 원리로서 ‘시기 설정의 원리’는 소그룹의 재생산을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소그룹이 적당한 재생산의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그룹이 재생산을 해야 할 시기는 규모가 커져서 소그룹 구성원들 안에서 친밀성과 돌봄이 약화되거나 소그룹 구성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준비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면 배가를 고려해야 한다.

²⁴⁹ibid., 231, 135.

소그룹 재생산의 마지막 원리는 '추후 관리의 원리'이다. 소그룹이 탄생한 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추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소그룹 재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추후 관리의 성패에 달려있다. 새로운 분가한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모그룹 차원에서의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회 차원의 관리는 소그룹 관리 시스템 구축, 새로운 리더의 훈련, 신생 소그룹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통한 중간 점검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소그룹 재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리더의 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그들과 만나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리더십이나 성경교수법, 영성관리, 소그룹 모임인도와 같은 노하우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이 발전하게 되면 소그룹 리더를 돌볼 별도의 전담 사역자나 코치를 준비하거나 경험이 많은 리더가 새로운 리더를 돌보는 멘토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후 관리는 소그룹 재생산, 나아가 소그룹 사역 자체의 궁극적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등과 같은 신약의 대다수 서신서도 어떤 의미에선 추후 관리를 위한 편지였다."²⁵⁰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교인이 많거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되는 것이

²⁵⁰명성훈, *소그룹성장마인드*, 236.

아니다. 교회가 재생산의 원리를 철저하게 내면화하지 못하면 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왕성하게 신진대사를 하여 분열하는 건강한 세포와 같이 교회도, 소그룹도 계속해서 세포분열을 해야 한다.

C. 소그룹 목회의 활성화와 리더십

소그룹 목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훈련된 리더가 부족할 때 소그룹 목회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능한 리더가 세워진 그룹은 광야에서도 조직의 체계가 흔들리며 무너지게 된다.”²⁵¹하나님께서서는 리더를 부르고 계신다.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알 수 없는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기술은 훈련에 의해 개발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구성원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1. 소그룹 리더의 자질과 사역

ㄱ. 소그룹 리더의 자질

성공적인 소그룹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그 그룹과 함께 모여서

²⁵¹이규학, 안만호, *소그룹리더양육매뉴얼*, 인천: 인천제일교회홍보출판사, 2008, 38.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 주고 봉사하는 일이 이루어 지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가 지녀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닐 F. 맥브라이트(Neal F. McBride)는 유능한 소그룹 리더의 일반적인 특징

7 가지를 통해 훌륭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딤후 3: 6). 둘째, 예수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벧후 3: 18). 셋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전 12: 25). 넷째, 섬기기를 즐겨야 한다(갈 5: 13). 다섯째, 겸손히 배우고자 해야 한다(엡 5: 10). 여섯째,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잠 19: 18). 일곱째, 그룹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전 3: 1)²⁵²

채이석은 소그룹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F.A.T.라는 세가지 영어 철자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즉 F.A.T.라는 신실한(Faithful)리더, 여유가 있는(Available)리더,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리더를 말한다:

첫째, 신실한(Faithful), 리더란 리더십으로 신실성을 말할 때 이것은 두가지영역에 적용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영역과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영역이다. 둘째, 여유가 있는(Available)리더는 뛰어난 자질은 가졌더라도 소그룹을 위해 시간적인 헌신을 할 만한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소그룹을 돕는 리더이다. 자신의 사람의 방식이나. 인생의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보고 과연 소그룹을 이끌 여유가 있을지 정직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 리더 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경과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 나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²⁵³

²⁵²닐 맥브라이트, 김영수역,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25-26.

²⁵³채이석, *이상화*, 172-173.

더그왈론(Doug Whallon)은 “리더는 여러가지 자질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세가지의 자질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첫째, 예수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기 위한 헌신으로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라 가는데 필요한 근원이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관계해 가기로 헌신함으로 소그룹 리더는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표명하며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헌신해야 한다. 리더는 사람들의 문제나 약점을 알아채고 그런 상황을 통하여 성숙해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야 한다. 성경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관련된 단어들을 수 없이 구사하고 있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등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능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것을 채워주며 강하게 하는 자질이다.²⁵⁴ 소그룹 리더의 훈련은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다. 훌륭한 리더는 기술이나 방법 이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리더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²⁵⁴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57-58.

2. 소그룹 리더의 사역

소그룹 리더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알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한옥은 소그룹 리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그룹 모임이 전체적 책임을 진다. 둘째, 예비 리더를 선발하여 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셋째, 소그룹 구성원들을 돌본다. 넷째, 불신자들을 전도한다. 다섯째, 지역리더와 연계하여 교회의 목회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한다.²⁵⁵

소그룹 리더가 사역할 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도우며, 각자가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각 구성원들이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교회에서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므로

²⁵⁵ 김한옥, *셀목회의 유형과 핵심*,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5, 123.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리더는 한 그룹의 지도자로서 생명력있게 이끌기 위해 구성원들을 섬기며 그룹의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의 리더십 유형은 다양하다. 많은 리더십의 유형 중 소그룹 목회에 적합한 바나바 리더십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많이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21 세기 새로운 리더십은 하이터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이터치 리더십이어야 한다. “하이터치란 한마디로 마음의 부드러움, 따사로움,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고도 기술사회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이터치라면 교회의 리더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에 가까운 성경의 인물로 바나바를 들 수 있다.

“바나바의 리더십은 감성 리더십이다.”²⁵⁶ 그의 이름에 의미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다. 그가 감성 리더십이 풍부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5 장은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하던 중 마가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제 1 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동행시켰는데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²⁵⁶정 원범, 21 세기리더십과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267.

그 일로 바울은 제 2차 여행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를 했고 이 일로 바나바와 언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르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이 사건에서 바나바는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감성 리더십을 보여준다.

또한 사도행전 9:27 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가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를 두려워할 때, 그가 주님을 만난 사건과 주님을 전한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해 주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와 함께 1 년동안 사역함으로 초대교회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세워주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1 장 19-30 절에 보면 바나바의 리더십의 목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역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었다. 어떤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행 11:24)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감성 리더십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다.

사도행전 15 장 28 절에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역이었다.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달리 성령 충만 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 장 36-37 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세속적인 물질과 권력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소유와 권력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21 세기 소그룹목회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4. 리더십의 형성과 실현

교회 내에서의 지도력은 사역에 필요한 교육적 훈련과 교회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전문적인 지도자 즉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직자를 교회를 다스리는 특별 계급으로 그리고 평신도를 교회의 보다 열등한 불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²⁵⁷ 성도들의 삶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든 하지 않던 간에 지도자로 간주된다. 교회 안에서 비공식 적이거나 또는 임명을 받지 않은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허다하다. 기독교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면 그린리프(Greenleaf)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 “조직을 관리하고

²⁵⁷Ibid., 156.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적일 힘을 사용할 지도자 우선의 사람과 인간의 기본속성 속에
섬기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지를 생각하는
지도자이다.

오스왈드샌드스(J. Oswald Sanders)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는
고난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²⁵⁸고 역설하고 있다. 모든 지도자는 갈등과 위기
그리고 어떤 형태든 고립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 리더십의 형성은 정규적인
훈련과정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D. 소그룹 리더의 개발원리

1. 소그룹 리더십 개발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사람을 키우고 개발하는 일은 리더십에서 최고의
소명이다"라고 말한다. 지도자를 개발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가진 자질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도자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ㄱ, 진실성이라는 성품의 계발로부터 시작된다.

²⁵⁸ibid., 158.

- ㄴ, 훈련을 위한 자원을 투자하라.
- ㄷ, 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되 이론과 실습을 통해 훈련하라.
- ㄹ, 사역의 권한을 위임하라.
- ㅁ, 사역에 대한 체크와 평가를 실시하라.
- ㅂ, 지속적으로 훈련하라.
- ㅅ,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라.²⁵⁹

문병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리더십 개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ㄱ, 진실성이라는 성품의 계발로부터 시작된다.
- ㄴ, 내부에서 외부로의 영향력 확대이다.
- ㄷ, 원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 ㄹ, 관계성 확장이다.
- ㅁ,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²⁶⁰

안재은은 소그룹 목회 원리와 프락시스에서 리더십 개발의 9 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ㄱ, 협력: 목회자와 동역 관계를 유지하는 일
- ㄴ, 모집: 자신을 대신할 예비리더를 세우는 일
- ㄷ, 초청: 모임에 초청할 사람과 계속 연락하는 일
- ㄹ, 준비: 모든 모임을 예비리더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일
- ㅁ, 모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모임을 인도하는 일
- ㅂ, 인도: 주일 예배에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을 참석시키는 일
- ㅅ, 섬김: 구성원들에게 소그룹 외부의 사람들까지 섬기도록 하는 일
- ㅇ, 전도: 우정을 맺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일
- ㅈ, 간구: 늘 주님 앞에서 경건생활을 하는 일 등을 제시한다.²⁶¹

²⁵⁹John Maxwell, *당신주위에있는사람을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임윤택역, 서울: 두란노, 1999, 160.

²⁶⁰문병하, *크리스천리더십*, 52-61,

²⁶¹안채은, *소그룹목회원리와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197-207.

지도자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깊은 관심과 헌신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듯이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리더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²⁶²

2. 소그룹 리더의 훈련지침

예수는 제자들을 리더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사역에 본을 보인 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제자들에게서 보고를 들었다. 예수님은 가르침, 시범, 체험, 그리고 토론을 통합시켰다. 예수의 교실은 사역의 장에서 습득된 지식을 함께 나누며, 기술 시범을 보이며 실습하는 장소이다. 예수는 소그룹 리더의 훈련 요소로 모델링, 실습, 상호 피드백 등을 사용하여 훈련하였다. 도나휴와 로빈슨(Bill Donahue & Russ Robinson)은 소그룹 리더를 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ㄱ,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필요를 다루라
- ㄴ,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하라.
- ㄷ, 체험을 통해 훈련하라.
- ㄹ,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라.
- ㅁ, 도구와 자료들을 제공하라.
- ㅂ, 집중하라.
- ㅅ, 과도한 훈련을 삼가라.²⁶³

²⁶² John Maxwell, *당신주위에 있는사람을키우라*, 162.

²⁶³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종심의교회를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17-220.

소그룹 목회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 개발과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소그룹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형편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적용할 때 성공적인 소그룹 목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제언

A. 요약

이 논문이 지향하는 연구의 중심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는 대안이 소그룹 목회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문제제기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장위주의 목회로 교회본질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의 상실로 친밀한 교제나 유대감, 소속감이 사라진 교회에 공동체성을 소그룹 목회를 통해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소그룹은 자신의 아픔과 문제 등 자신의 삶을 솔직히 나누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성을 경험하며, 자신의 은사와 성품에 따라 섬기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그룹 목회는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목회현장에 건강한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목회적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나 한국교회에 만연된 개인주의 중심에서 오는 '인간소외' 및 '신앙과 삶의 분리' 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이 의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소그룹 목회라고 확신한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목회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소그룹 목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그룹 목회를 교회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교단, 교회의 토양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입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목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소그룹목회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목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여 소그룹목회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건강한 교회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오늘날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적합한 목회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소그룹목회의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소그룹목회의 목회신학을 정리하고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셋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소그룹 목회의 이론과 실재를 목회현장에 적용하여 성경적인 교회성장을 이루는 소그룹 목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물론 본 연구가 연구한 방향 이외에도 소그룹 목회를 연구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B.제언

급변하는 사회 환경가운데 놓여 있는 전통적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력한 교회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절대 진리의 거부와 진리에 대한 상대화, 다원주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그래서 모이기 힘들고, 사역을 수행하기도 힘들다, 또한 개인이 쉽게 소외될 수 있고, 도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교회는 소그룹 목회를 통하여 섬김과 격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유기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목회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회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소그룹 목회를 헨더슨 주사랑 장로 교회를 통하여 소그룹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도전의 용기와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한 교회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 회복을 가져와야 한다.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그룹목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고는 소그룹 목회의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놓치게 만든다. 교회성장에서 소그룹목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 회복과 사명을 모색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소그룹목회가 피상적인 나눔을 넘어 초대교회와 같이 실제적인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은 개념적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공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행 3: 34)라는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의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소그룹 목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한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급격한 변화와 도전 속에 교회마다 새로운 예배 도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역동적 예배가 될 수 없다.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역동적인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죄의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며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삶을 결단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에 열려있는 소그룹,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하심을 느끼는 소그룹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부흥할 수

있다.

넷째, 교회는 열린 공동체이며 선교를 위한 공동체이어야 한다. 21 세기의 소그룹 목회는 선교적인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그룹 목회의 선교적 사명은 그 소그룹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미쳐야 한다.

본 연구는 비대한 조직체로 굳어져만 가고, 성장을 멈추고 침체되어 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소그룹목회=교회라는 구조의 소그룹 목회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여 소그룹목회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지만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가 다양한 소그룹의 유형을 연구, 분석을 하지 못하고 소그룹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을 성경적 원리로만 접근하였기에 사회학적, 구조적 측면의 연구가 미흡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1 세기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단위의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의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 비록 예수의 작은 12 명의 소그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소그룹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낸 것처럼 한국교회도 소그룹목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이며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현대 교회의 대형화와 제도화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성도간의 교제가 없고, 함께하는 성숙과 섬김의 경험이 약화되었다. 작은 조직의 활성화가 없는 교회성장은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되었다. 교회가 제도화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공동체적 삶이 약화되었고, 이름뿐인 교인들이 양산되었으며 결국 성도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체성이 저하되어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초대교회가 수직적으로 뜨거움이 넘치는 영적 공동체였고, 수평적으로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섬김의 공동체로서 칭찬을 들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지금의 구역제도가 한국교회의 많은 유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이 구역제도는 큰 갈림길에 서있다. 분명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이더라도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교회의 역동적인 제도로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다면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잡아온 '구역'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현대의 많은 중소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성경적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역을 다시 활성화해야하는 이유들은 많다.그것은 이 시대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마땅히 요구이며 시대적인 필요성뿐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역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론으로:

첫째, 교회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좋은 믿음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 소그룹구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다.

둘째, 특히 외롭고 신앙의 기본과 역사가 없는 이민교회에서는 공동체적 구역활성화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이민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참고도서 목록 (BIBLIOGRAPHY)

1. 국문 서적

- 관악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권상진, *이민교회 2 세 교육목회 길라잡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 교회성장연구소,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2000.
- 김문현, *가슴으로 읽는 사도행전*,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9.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 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편,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원기, *차세대를 위한 구역제도 갱신을 제안한다*, 목회와 신학, 1996 년 5 월호.
- 김재은, *교육목회*, 서울: 성서연구사, 1998.
- 김지철,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640.
- 김찬중, *교회성장을 위한 구역 운영 지침서*, 서울: 무림출판사, 1991.
- 김한옥, *목회의 개념,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목회학, 서울: CLC, 2009.
- 김한옥, *셀목회의 유형과 핵심*,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5.
- 김현진, *공동체적인 교회의 회복*, 기독교 사상, 1999.
- 류영모,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2002.
- 류영모,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을 품은 G12 셀 리더십*, 서울: 서로사랑, 2004.
-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문병하, *교회성장과 목회리더십*,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문병하,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학*,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출판국, 2008.
- 문병하, *크리스천리더십*, 파주시: 도서출판 목양, 2011.
- 문효식,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연구*, 국제신학, 통권 제 8 호,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6.
- 박병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사도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몸'의 비유.
-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 안재은, *소그룹과교회성장*,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 오현철, *교회성장과 설교*,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 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 옥한흠, *평신도를 깨워라*,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2010.
- 이규학, 안만호, *소그룹 리더 양육 매뉴얼*, 인천: 인천제일교회 홍보 출판사, 2008.
-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신문사, 2002.
- 이승진, *현대설교의 개요*,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설교학, 서울: CLC, 2003.
- 이원규,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전망사, 1992.
- 이연길, *소그룹 성서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 임석중,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2.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전중동,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2005.
- 정원범, *21 세기 리더십과 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정훈택,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목회와 신학 4 월호, 1999.
- 조영호, *오순절 회심 사건 연구*,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출판부, 1987.
- 조용기,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5.
- 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3.
- 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채이석, *소그룹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00.
- 채종성, *소그룹목회의 시작과 진행에 관한 고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편*, 서울: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편, 2013.
- 최동규, *교회성장의 성서적 원리와 전략*,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복음주의 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최상태, *21 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선숙, *소그룹 운영*, 서울: 기독교교육사, 1982.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두란노, 1999.
- 최종상, *복음이 불신자를 만날 때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와 신학 편집부, 전도, 목회와 신학총서 07,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하워드 J. 크라인벨, 현대복회상담학,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이렇게 한다, 서울: 순출판사, 1990.

한만오, 건강한 미래형 소그룹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제 16 권. 2008.

한미준,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서울: 두란노, 1999.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97.

2. 번역서적

A. M. Renwick & A. M. Harman, 간추린교회사, *The Churchage an Outline of Church History*, 오창윤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9.

Anne Ortlund, 소그룹지도를통한신앙훈련, (*Anne Ortlund Discipling One Another*, 편집부역, 서울: 보이스사, 1986.

Bill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21 세기를위한교회갱신, 터치코리아사역팀역, 서울: NCD, 2000.

Bill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터치코리아사역팀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교회를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교회를세워라(*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Grand Rapids: Zondervan, 2001.

Bill Hull, 변혁 21 세기교회의생존전략 (*Survival Strategies of The 21st Century Transformational Church*), 마영래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2006.

Bill Hull, 변혁 21 세기교회의생존전략, 마영래역, 서울: 디모데출판사, 1990, 234.

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Carl F. George, 성장하는미래교회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Carl F. George 외 5 인, 소그룹사역의새로운방향, *New Direc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한국소그룹목회연구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d*)정진우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교회성장첫걸음, 윤수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Clyde Reid, *Groups alive- Church alive the Effective use of small groups in the local church*, New York: Harper& Row Publishers, 1969.
- Clyde Reid, *소그룹이살면교회가산다*, 전요셉역, 서울: 쿤란출판사, 1996.
- David L. Hocking, *교회성장중심의성경적목회방법 (The World's Greatest Church)*, 편집부역,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4.
- Disciples Publishing House, ed, *The Grand Bible Commentary, Vol 16*,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93.
-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전재옥외역,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2001.
- Gareath W. Icenogle, *소그룹사역을위한성경적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역, 서울: SFC 출판사, 2007.
-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Illinois: IVP, 1994.
- Gary W. Kuhne, *제자훈련제작과진행, The Dynamics Of Persona Follow-up*, 엄종오역, 서울: 나침반사, 1986.
- Gene A. Getz, *현대교회성장학*, 임성택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 Gene A. Getz. Joe L. Wall, *효과적인교회성장전략 (Effective Church Growth Strategies)*, 김현회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2001.
- George Barna, *비전을실행하는지도자, Turning Vision Into Action*, 조범서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과목회전략 (Church Growth and Pastoral Strategy)*,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광림, 1987.
- Homer A. Kent, *목회학*, 이주영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Howard A. Snyder, *새포도주는새부대에*, 이강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 Howard A. Synder, *그리스도의공동체*, 김영국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새부대에*, 이강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J Comiskey, *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역, 셀그룹폭발, 서울: NCD 2003.
- Jean Cadier, *칼빈하나님이길들인사람*, 이호갑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Jeff Caliguire, *사도바울의리더십비밀, Leadership Secrets of Paul*, 조계광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Jimmy Long, *소그룹리더핸드북(Small Group Leaders Hand Book: The Next Generation)*, IVP 자료개발부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 Jimmy Long, *소그룹리더핸드북, Small Group Hand Book*, IVF자료개발부편역, 서울: IVF 자료개발부, 2000.
- John Calvin, *기독교강요하권*, 김종흡외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John F. Macarthur, *주님의교회계획*, 최지남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John Foster, *초대교회의역사, The First Advance Church History*, 심창섭, 최은수역, 서울: 웨스틴민스터출판부, 1998.
- John M Terry, *셀교회론, Church Evangelism*, 박영철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John Malloson, *생동감있는소그룹매뉴얼*, 신재구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John Maxwell, *당신중위에있는사람을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임윤택역, 서울: 두란노, 1999.
- John Naisbitt, *메가트렌즈(Mega Trends)*, 정상용, 홍성범역, 서울: 고려원, 1998.
- Louis Berkhof, *기독교신학개론(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Malcolm S. KnowelsHulda, *그룹다이나믹스입문*, 이수민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5.
- Martin Schmidt, *경건주의, Pietism*, 구영철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Neal Cole, *LTG 삶을변화시키는소그룹*, 편집부역, 경기: NCD, 2007.
- Neal F. McBride, *How to small Groups*, Colorado: Navpress, 1990.
- Neal F. McBride, *성공적인소그룹만들기 (How to have great small group meetings)* 네비게이토, 1999.
- Nea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How to Small Groups)*, 조성동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1.
- Otto Weber, *칼빈의교회론*, 김영제역, 서울: 이레서원, 2001.
- Paul Stevens, *21 세기를위한평신도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렬역, 서울: IVP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Perry C. Cotham, *오늘의예배학, Ending Worship Wars through Sound Theology and Plan Common Sense*, 정남수, 문병하역, 서울: 그리스도대학교출판국, 2004.
- Ralph Neighbour W, *셀교회지침서(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Ralph W. Neighbour Jr, *새로운삶의안내*, 박영철역; 서울: NCD, 2000.
- Robert E. Coleman, *주님의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 Robert John Banks, *바울의그리스도인공동체사랑*, 장동수역, 서울: 여수론 1999.
- Robert John Banks, *의바울의그리스도인의공동체사상(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 in their Historical Setting)*, 장동수역, 서울: 도서출판여수론, 1991.

Robert, Banks, op, cit, 112.

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교회성장*, 신재구역, 서울: IVP, 1986.

Ron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Cell for Life*, 장동수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V. Branick, *초대교회는가정교회였다*, 홍인구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William Beckham, *'제 2 의종교개혁: 21 세기를위한교회갱신'(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21stCentury)*, 터치코리아사역팀역, 서울: NCD, 2000.

William H. Willimon, *예배와설교클리닉, A Guide to Preaching and Leading Worship*, 김윤구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3. 간행물

김남용, "소그룹 사역의 성경신학적 이해" 국제신학, 서울: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 호, 2000.

김현진, *공동체적인교회의회복*, 기독교사상, 484 호.

문병하, *교회성장과목회리더십*,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편, 복음주의교회성장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2010.

이한수, *조직체로서의 소그룹에 대한 평가*, 충동창회보, 제 14 호, 2002.

함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신학 5 월호, 1996.

약력 (VITA)

Present Position: Henderson Christ Love Presbyterian Church

Rev. Dong Woo Nam

Education: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1995. B. A. eq

1998. M. Div. eq

2000. TH. M. eq

